



# 時計塔

SIGETOP



2015년 1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2권 1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徐仁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倫錫 徐亮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편집인: 李元澤 羅斗雙 李善姬 李熙景 許善行

## 을미새해

동문여러분과 가족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 회장 신년사

회장 서인석(73)



2015년 청양의 해가 밝아왔습니다. 다가오는 유월, 뉴저지 타네 Glenpoint Marriott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를 계기로 젊음을 되돌려 찾는 "을미 회춘"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몇 임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회춘의 바람이 꿈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80년 이후에 졸업한 젊은 후배 동문들이 6월에 열리는 학술대회에 무려 30-40명 참석할 예정입니다. 65살 이상의 나이가 차이나는 선배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선배님들은 선배님대로 후배님들은 후배님대로 세대차에서 을 수 있는 괴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요. 변혁하기 위해서는 지켜왔던 전통도 부수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42년간 지켜 내려왔던 선배님들의 지혜와 덕행을 이어갈 수 있는 슬기도 함께 지녀야 할 것입니다.

모국의 200여배나 큰 북미주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1200 명의 동문들을 묶어주는 가장 상징적인 연결고리가 동창회비가 아닌가 합니다. 동창회 임원으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동창회비도 열심히 내시고,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동문들 덕분에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직접 봉사는 못할지언정, 직접 참석은 못할지언정, 멀리서나마 동문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시는 동문들의 성원 때문에 순항을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동창회비 납부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Retire하신 동문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기회장님! 지부회장님! 함께 모이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창회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강조해 주십시오.

아직 동창회와 익숙하지 않고 서먹하지조차 할 젊은 동문 여러분들! 앞으로 1200 동문의 networking의 중심에 서서 동창회를 이끌어 가실 분들입니다. 일단 동창회비를 내어보십시오. 갑자기 1200명의 동문들과 더욱 더 가까운 가족이 된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동기 모임, 지부 모임 등에 다른 학년, 다른 지부, 더 나아가 전체동창회의 모임과 접촉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풀어야 될 명제일 것 같습니다. 2012년 분대옥 회장때 열렸던 올랜도 학술대회와 Western Caribbean Cruise는 동기모임과 효과적으로 어우러진 성공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서도 많은 학년대표, 지부회장님들께서 열심히 성원해주고 계십니다. 학년 단위의 협조와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저희 동창회의 장래가 한층 밝아질 것 입니다.



김명원(68, 남가주)

올해는 대뉴욕지부의 심장부에 위치한 뉴저지 타네에서 학술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반 이상의 동문들이 네다섯 시간 문전거리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JFK, Newark, LaGuardia 등 커다란 공항 셋이 3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미주 방방곡곡은 물론 고국에서도 한달음에 달려오실 수 있습니다.

몇년전 64년 선배 부부들께서 혼들 춤을 추시며 부르시던 "있을 때 잘해줘!" 라는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2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정신적인 지주로 저희들을 천년만년 지켜주시길 믿었던 이규용 대선배님을 비롯, 인자하시고 다정하시던 동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건강할때 자주 만나줘!" 하고 외쳐보고 싶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6월 학술대회에서 만나 뵙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가내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2015년 학술대회 행사 안내

## 시계탑 40주년 기념행사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11시 Banquet at the Glenpointe Marriott

시계탑은 지난 42년 동안 미주 동문들의 환희와 고난의 역사를 담아왔고, 동문들에게 서로의 경험과 꿈과 생활을 전달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 우리 동창회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지난해로 40주년이라는 장년의 나이를 맞았습니다. 노용면(55) 초대 편집장님을 포함한 12명의 편집장님들, 수많은 편집위원과 자문위원들, 그리고 주옥같은 작품들을 기고해주신 동문들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Convention 플랫폼 (6월 5일: 금요일)에 있을 Banquet에서 시계탑 40주년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출판위원장 이원택 (71)  
wonlee0120@gmail.com / 562-743-1436 (cell)

## 작가와의 만남

지난 2012년 올랜도 Convention 때의 경험을 되살려, 이번 2015년 학술대회 동안에도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출판된 작품집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대회장으로 우송해 주시면 서로 나누어 읽어보고 작품의 세계 속을 독자들과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Book shipping to Glenpointe Marriott Hotel/Attn: SNUCMAA/Andrew Tomassetti  
100 Frank W Burr Blvd, Teaneck, NJ 07666  
wonlee0120@gmail.com

## 월남 파병 50주년 기념 기록 및 사진 모집

지난해가 월남 파병 50주년이었습니니다. 비록기 부대 선발대로 참전하셨던 김은섭(59) 동문의 혁혁한 공훈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외의 많은 동문들께서 형제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명의 위함과 더위를 무릅쓰고 헌신하신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시리라 믿습니다. 월남 참전 경험을 가지신 동문들의 기록 및 사진들을 찾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 참전용사가 5명 이상 컨벤션에 참석하시면 Reunion meeting을 우선해 보겠습니다.

wonlee0120@gmail.com

## Drawing on the Computer

지난 회 시계탑에 "순안대고 코플기" 기사가 나간 후로 많은 동문들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동문 및 가족들께서는 삼성 갤럭시 노트북의 Sketchbook Pro (\$4), 혹은 iPod의 Procreate + Stylus (\$15) 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e-mail을 통해 4-5개월 연습을 하신 후, 6월 달 학술대회 동안에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솜씨를 발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좋은 공부기 될 것이고, 값진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처: 김영민(68)  
myongwonk@gmail.com / 714-329-3500 (cell)

## 사진 공모전

예술사진과 기념사진 두 부분별로 analog 및 digital 사진들을 오는 3월 31일까지 출품하셔야 수상작 선정에 포함되오니 가능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셔서 아래 주소로 접수시켜 주십시오. 1, 2, 3등 및 가작을 선정하여 6월초에 열리는 학술대회장에서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smuraweb@gmail.com or  
SNUCMA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0060

## 합창단 Reunion

6월 5일, 금요일 7:00 - 11:00pm Banquet at the Glenpointe marriott

합창시절에 합창단원이었던 동문들, 현재 성당이나 교회 성가대 단원이신 동문 및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엄선한 3-5곡의 악보를 e-mail로 보내드릴 테니 집에서 연습해 주십시오. 학술대회 중 함께 연습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참가와 성원을 바라며,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합창단장 국영순 (Mrs. 이명희 66)  
Yalook31@aol.com / 914-844-3212 (cell)

## Pre-Convention Golf gathering

Glenpointe Marriott Hotel에서 서쪽으로 한 시간 떨어진 곳에 특급 골프장 6-7개를 가지고 있는 Crystal Springs Resort에서 1박 2일 "Z" shot-gun tournament를 저렴한 가격 (첫날 점심, 저녁 및 플랫폼 아침 식사 포함 일인당 약 \$200)으로 즐기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6월 3일(수요일): 각자 교통편을 이용하여 오후 1시까지 집결. 간단한 점심 식사 후 2시 Black Bear GC에서 shot-gun tournament. 저녁 식사 후 Minerals Hotel에서 취침.

6월 4일(목요일): 오전 7시 뷔페 식사 후 8시 Black Bear GC에서 shot-gun tournament. 끝난 후 학술대회가 열리는 Glenpointe Marriott Hotel을 향하여 각자 출발.

학년 및 chapter 대항도 계획 중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예약 문제상 저렴한 패키지 가격은 일찍 마감됩니다. 가능한한 학년 대표님들께서 단체로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Convention Co-Chair 오용호 (72) yonghooh@gmail.com; (201) 951-3484 (cell)  
Golf tournament chair 김상복 (67) kim194336@aol.com; (518) 598-4960 (cell)

## President Forum

June 7, 일요일, 8:00-10:00 am

1972년 이광수 초대 회장님부터 2009년 이성준 회장님까지 간략하게 정리한 역사를 e-mail로 보내드릴 테니, 모든 전임 회장님 및 회장단들 임기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시는 대로 보충하셔서 3월말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임 회장님 및 회장단들을 모시고 지나간 42년의 동창회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열방에서 진행되고 있을 Green Project Forum과 어떻게 상부상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저희 동창회의 장래가 결정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장 서인석 (73): 561-567-3212 (cell) ins9002@hotmail.com

## Post-Convention Tour

President Forum과 Green Project Forum이 끝나자마자, 3박 4일의 Post-Convention Tour를 떠날 예정입니다. 한 때 세계 제 1위의 신혼 여행지였고, 주목받은 영화 촬영장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톨론도, 천섬(Thousand Islands), Lake George 등을 관광하면서, 이흥민(63), 이건일(68) 동문 등의 Wine 대가들을 모시고 곳곳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Winery 중 몇 곳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Alaskan Cruise Convention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어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Wise Stories (지담)"의 sequel을 온기철(71) 동문과 Ancient Korean History의 대가로 명성이 자자한 김은한(66) 동문의 합작으로 버스 여행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버스 여행이라면 배낭을 수 없는 정정수(62), 김중권(69), 문대욱(73) 동문 등의 구수한 반담과 가라오케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Niagara Falls와 Lake George에 머무는 동안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local chapter 동문들과의 만남도 우선해볼 예정입니다. Buffalo, Central New York 및 Albany 근처에서 Training을 받으신 동문, 개업을 하시다거나 떠나신 동문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이번 기회로 Local chapter에서 지부 역사 및 거쳐 가신 모든 동문들의 List를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Home Coming"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을 키우며 젊은 청춘의 땀과 눈물이 얼룩진 제 2의 고향을 방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Convention Chair 최준희 (64): (201) 615-0616 (cell)  
johnchoim@yahoo.com

## Post-Convention "Wise Stories (지담)"

6월 7일(일)부터 10일(수)까지 있을 Post-Convention Tour를 하는 동안 진행될 "Wise Stories (지담)" series에서 Current Political Issue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토픽을 가지고 참가하고 싶으신 동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o-chair 김은한(66) eunhankim@hotmail.com 617-548-9323 (cell)  
온기철(71) jamesunohr@comcast.net 209-968-3326 (cell)

## Home Coming and Meet the Local Alums

학술대회가 끝나는 6월 7일(일)부터 10일(수)까지 진행되는 Post-Convention 여행 동안 머물 예정인 Niagara Falls (6월 8일(월) 오후 6시 at the Brass Brazilian Steakhouse with Western New York Chapter Alums)와 Lake George (6월 10일(수) 오후 12시 at the Steam Boat Luncheon with Albany Chapter Alums)에서 "Home Coming & Meet the Alums" 행사를 가진 예정입니다. 의외로 많은 동문들께서 Resident, Fellow, Attending 생활을 보내신 곳들입니다. 자녀 교육 등으로 울고 웃으며 지냈던 제2의 고향을 둘러보며 헤어졌던 옛동문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않으시겠습니까? 지부를 거쳐간 동문들의 명단과 지부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와 거주했던 기간, 간단한 설명을 첨부한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있는대로 보내주시기.

Western NY 지부회장 신규호(68) khshin50@gmail.com 716-574-6641 (cell)  
Albany 지부 총무 송주호(81) jong@nycaparr.com 518-783-1863 (home)

## 시계탑 문집 제 5호 발간

지난 일년 이상 회장단, 출판위원, 동창회 사무실, 인쇄소 등이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시계탑 회보 출간 40주년이 되는 2014년 11월에 문집 제5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우송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능한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는 모임에서 직접배포하기로 하고 우선 작년 11월 22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열린 대우교육지부 Annual Ball에 맞춰 일부를 인쇄했습니다. 초판에서 이한중(65)동문의 시 한편이 빠진 것을 발견하고 내친김에 정민적인 교정 작업을 벌여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칼을 댔으나 서울의대의 기준으로 볼 때, 엉성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작가의 의도를 존중해서 고치지 않은 곳도 꽤 있습니다.

부족한대로 2014년이 가기 전에 개정판 인쇄를 끝내고 2015년 1월 24일 남가주지부 신년하례식때 100부정도 배포 하였으며 금년 6월초 뉴저지에서 열리는 연례학술대회때도 보충 배포할 것입니다.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책을 잘 만들어도 아무도 읽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강권할 수는 없고 꼭 읽을 사람들에게 빠지지 말고 전달되어야 하겠기에 우선 서울대학 미주동창회에 20부, 모국 의대동창회에 50부를 우송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서 직접 받아보지 못한 동문들께서는 나중에 한부씩 우송해 드리겠으나 혹시 여러 권이 필요한 분은 배달료 첨부해서 동창회 사무실로 추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2015 제1차 대의원회 초록

일시: 2014년 11월 22일 4시  
장소: Double Tree Hilton Hotel, Ft Lee, NJ

참석자:

노용면(55) 이만택(58) 이재승(61) 이희경(61) 이흥빈(63) 추재욱(63)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허선행(64) 홍선경(64) 이병희(66) 최순재(66) 최영자(66) 우준균(67) 서윤석(68) 육순재(69) 강유구(71) 강창홍(71) 이원택(71) 석창호(72) 오용호(72) 서인석(73) 김원정(75) 한민우(75) 백승원(79) 이선희(81) 한창규(81) 심인보(83) 박종신(89) 오무연(89) 남영재(94) 박성철(99)

Proxy:

김웅식(55) 정구영(57) 채규철(59) 최종진(59) 황현상(61) 송영두(62) 김태환(64) 이건일(68) 엄규동(69) 조영갑(70) 김유식(71) 강태수(71) 조세진(71) 문대욱(73) 김치갑(79) 이승호(79) 이영인(86) 안상훈(94)



1. 성원 점검후 오후 4시 개회를 선언함.
2. 2013-2014 제2차 통합 이사회 & 대의원회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와 제정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3. 지난 통합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이후 돌아가신 동문들에 대한 조의 표함.
4. 회장 인사(서인석): 참석하신 모든 임원, 이사 및 guest에 감사를 드림. 내년 6월에 열리는 학술대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동문들의 협력이요망됨.
5. 총무보고(한창규): 9월 13일 이후에 있었던 Green Project와 Community Outreach 모임 및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함. Unfinished Business는 각 분과 위원회 보고시 함께 의논할 예정임.
6. 재무보고(심인보): 지난 회장단에서 정식 결산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음. 등창회비 \$41,180 (\$27,000), directory fund donation \$13,850 (\$3,645), convention fund \$12,300 (\$5,100) 등 지난 이사회 이후 약간의 진척이 있었음.
7. Combined SNUAA Greater New York Chapter and SNUCAA of NA annual ball: 광승용(71) 뉴욕지부 회장의 간략한 보고가 있었음.
8.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캠페인: 이번 delegate meeting과 annual ball 참석차 모교에서 특별 방문한 박종신 대외협력본부장(89)께서 SNUCM library의 현황 및 renovation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함. 북미주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함.

**Committee & 보고**  
Change Committee(이만택 위원장): Donation for the library renovation을 SNU Foundation를 통해서 하면 tax 혜택이 훨씬 수월할 것임. SNU Foundation를 통한 donation 현황을 보고함.

- Publication Committee (이원택 위원장):
  1. 시계탑 문집 제5집 출판 - 1차로 11월 22일 Annual Ball에서 배포함.
  2. 시계탑 신문 및 문집에 실을 광고 모집이 부진해서 당분간 보류하기로 함.
  3. 작가소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소개하는 것을 편집인이 발췌하기로 함.
  4. 책임 편집제 도입 - 출판위원이 각 분야별로 2페이지씩 책임지고 원고모집, 편집, 교정까지 끝내주는 제도. 예를 들면 (1) 동문동정, 지부소식 (2) 조사, 추도문 (3) 문예작품 (4) 그림, 서예, 사진 (5) 기념행사, 여행기 (6) Green Project (7) 농담코너 (8) 총무, 재무 사항.
  5. 농담골목 - 우수작 선정: 내년 1월호부터 시상(100불). E-mail로 투고 독려 - 12월말 마감 - 출판위원 전원의 다수 투표로 결정할 예정임.
  6. 내년 학술대회(6/5/15) 때 시계탑 40주년 기념회, 제5집 시계탑 문집 출판 기념회와 작가들의 모임을 가질 예정임.
    - 시계탑 40주년 기념회 및 제5집 시계탑 문집 출판기념회: 둘째 날(6월 5일) banquet 환영회 때 20분 정도 할애할 예정임. 전임 편집장, 출판위원과 시계탑 문집 5호에 실린 작가 전원에게 개별 초청장을 보낼 것임 (회장과 출판위원장 공동명의로).
    - 작가들의 모임: non-CME room 한 쪽에 저서나 작품을 전시하고 작가들과

의 대화 시간을 마련할 것임.

- Scientific Committee (강유구 한창규 공동 위원장): 금요일 및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9칸의 CME 및 non-CME를 가질 예정임. 반 이상의 slot을 young alums (80년 이후 졸업생)들에게 할애할 예정임. Resident, fellow 및 PhD 연구 논문들을 다수 포함시킬 예정임.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오전 두번의 GP Forum을 갖고, young alum들의 단합 대회를 가질 예정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연사들을 확정하고 abstract를 확보할 것임. Thomas Jefferson University로부터 CME 1 "9" credits를 받을 예정임.

- Non-CME Committee (Mrs. 한민우 Mrs. 김원정 공동 위원장): 한국의 현대 미술, Painting. Painting using iPad or Galaxy note, SNS, smart phone, app, Photography, Wine, 한복의 변천사, 실용적인 종이접기 workshop, Plastic surgery, Hospice, Raising grandchildren in a diverse society 및 Wise stories (지담: 윤기철, 김은한 공동위원장) 등을 계획하고 있음.

- Convention Committee (최준희 오용호 공동 위원장): 참석하는 모든 동문 및 가족들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음. 금요일 밤 호텔에서 있을 Banquet 동안 시계탑 40주년 행사가 있을 예정임. 토요일 밤 요트에서 거행될 Grand Banquet는 버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엄수가 꼭 필요함. Pre-convention golf gathering과 post-convention tour에도 많은 참석이요망됨.

- Green Project Committee (오무연 위원장):

1. Travel Fellowship: Training 중인 resident, fellow 및 PhD 동문들의 학술대회 참석 비용의 일부를 장학기금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legal clearance를 얻었음을 보고함.
2. "HamchoonFund": \$8,000의 특별 기금을 확보해 training이 최근 끝난 young alum들의 경비 보조 등에 쓰일 예정임을 보고함.
3. Future Directions & Area to Explore: Green Project Retreat, Liaison between GP & other committees, Posting on Facebook 및 1980년 이전 졸업동문들의 Facebook 초청건 등을 고려하고 있음.

- Charity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 서면보고): 지난번 지원한 CoCo를 계속 지원할 예정임.

- By Law Committee (노용면 위원장): 지난 1년간 토의해 왔던 '준회원' 설정에 대한 문안을 교정함. 간단한 토의후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음.

- Scholarship Committee (이영인 위원장: 서면보고): 2015 Fall scholarship 후보 7명 (김태웅 장학생 2명 및 북미주 서울의대 동창회 장학생 5명)을 선정함.

1. 김태웅 장학생: 정해진(서부), 박영수(서부)
2. 북미주 서울의대 동창회 장학생: 헤린(서부), 송영웅(동부), 권혁원(동부), 김남우(동부), 김연수(서부).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음.

- Office Management Committee (강창홍 위원장): Office Manager의 임금인상 요청에 대해 토론을 거쳐 (1) 봉급을 적정액으로 올릴 것, (2) 동문들의 전화연락은 주 5일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내로 자제해주시길 시계탑에 공고할 것을 건의함.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음.

- Community Outreach Ad hoc Committee (이승호 위원장): 동문 각자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모아 주위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런 활동을 통해 동문들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project를 계획하고 있음. 지난 시계탑에 공고를 내, 참여를 원하는 동문들의 프로젝트를 모집하고 있음. '3' 이내의 프로젝트에 \$3,000-4,000을 지급할 예정임을 보고함.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음.

- Finance Committee (최순재 위원장): 지난 회기의 결산보고를 기다리고 있음.

- Fund Raising Committee (추재욱 위원장): Directory을 위한 fund raising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병희 위원장: 서면보고): \$300,000을 기준으로 지난 10-15년간 큰 변화가 없음. 8월 21일 현재 \$300,481(GMB \$414,032) 잔고가 있음.

-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 (조세진 위원장: 서면보고): 지난 7월 시계탑에 함촌의학상 공고가 게재되었고,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후 모교 동창회 본부에 우송함.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 Nominating Committee (김성환 위원장): 차기 회장은 Southern CA와 Greater New York 이외의 지부에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됨. MD와 VA/WDC 지부의 몇몇 동문들의 이름이 거론됨.

- Silver Committee (허선행 위원장): 이번 silver committee tour는 post convention tour와 병행할 것임.

- Directory Adhoc Committee (문대욱 위원장): 내년 컨벤션 배부를 목표로 열심 준비하고 있음.

내년 6월 학술대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하며 참석한 모든 이사 및 대의원들께 감사 인사와 단체 사진을 끝으로 5시 45분에 제1차 대의원회를 마침.

Prepared by 총무 한창규(81)

## 신/간/소개

### 오페라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신증보판)

한(이)혜원 저, 펴낸 곳 (주)여백미디어



오페라를 좋아하던 멀리하던 시청각 기기의 밀립에 물러사는 우리는 수시로 오페라와 연관된 음악이나 음물에 접하게 된다. "할 말 있으면 말로 하지 무엇 때문에 길게 늘어뜨린 노래로 해야 하느냐" 고, 대개는 농담이지만, 빈정되는 사람들도 정겨운 오페라 멜로디가 나오면 흥겨운 반응으로 따라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인으로서 오페라를 좀 이해하며 살면 삶의 아름다움이 더 풍요로워 지지 않을 까 생각된다. 때마침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감상을 쉽게 도울 수 있는 좋은 책이 출판 되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우리 시계탑 독자들에게 친숙히 알려진 한(이)혜원 교수로서 저명한 간질환 연구자이며 알뜰 친절환 치유자로, 또한 여성/가정상담과 권익 신장 등 다방면에서 人을 배풀어 오고있는 필자의 의대 동기생이기도하다. 소녀 시절부터 방과 후 밤 학교 강당의 piano를 독습하여 원하던 교회 반주자가 되었을 만큼 음악적 성향이 남달랐던 그녀는 많지 않은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40여년간 깊은 음악, 특히 오페라에 심취하고 탐구하여 그 結晶의 최신판인 "오페라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신증보판" 이 최근에 출판되었다. 2002년 초판에 이

어 2010년에 증보판이 나왔으며 동기생인 김진호 화백(전 서울의대 교수)이 삽화를 그려 각 오페라 무대장면 연상을 도우고 있다. 총 736 쪽의 방대한 이 신증보판은 47편의 저자가 선호하는 오페라의 해박한 해설 외에도, 두 편의 서문, 세편의 추천사, 그리고 부록으로 '오페라의 神女 마리아 칼라스', '나의 오페라 인생' 등 두 편의 자전적 essay들이 실려 있다.

"MET on HD Theater" program이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오페라 관람이 상류 부유층의 전유물의 테두리에서 벗어난지도 근 10년이 되어 이제는 누구나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오페라 관람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관이라도 이 책에서 그 해설과 스토리를 읽고 가면 쉽고 효과적인 감상을 할 수 있다. 필자를 포함해서 뉴욕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 책의 효능에 힘입고 있다. 6.25 동란을 포함한 어려운 성장 과정에서 올바르게 창의적 인생을 경이롭게 살아온 저자의 이야기가 직간접으로 스며 있는 이 책은 독자들과의 심금에 와 닿을 것이며 특히 의료인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귀중한 서적이 될 것이다. 이희경(61) 記

### 미주동창회 본부 사무실 업무시간 안내

업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동부시간)

전화연락을 제외한 이메일, 팩스는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Fax: (516) 365-5501 email: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 동문동정 및 지부소식

**Mrs. 한용현(48) 피아노 독주회:** 한용현 동문의 부인 클라라 한께서 오는 2월 16일(일) 오후 3시에 후로리다 Palm Beach Gardens에 있는 The Cathedral of St. Ignatius Loyola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매년 연주회를 가지시는 왕성한 열정에 찬사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가까이 계신 동문 및 가족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만택(58) 동문:**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이만택(58) 이사장은 지난 10월 6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을 방문하여 강대희 학장과 미주재단의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의대학생 학년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의견을 교환하였다. 10월 7일에는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과 미주재단 지원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이자리에는 왼쪽부터 서울대기회처장-미주재단 이사 이철수 교수,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이만택 이사장, 서울대발전기금 본부장-미주재단 이사 안지현 교수가 참석하였다.



**대화요법:** 주로 한국인의 대화문화를 교육하고 개선하고 있는 ABC(A Beautiful Communication) 상담교육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여천기(62, 정신과, 남가주)동문은 지난 가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남가주 동창회가 자선음악회를 통해 모은 5,000달러를 "정신질환가족과 환자간의 대화"를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여동문은 오랫동안 교포사회에서 가정과 개인들의 정신건강과 관계문화, 소통부재를 개선하는데 헌신해 왔다.

**부창부수:** 본회 전임회장 감성환(71, 남가주) 동문은 작년 11월 16일(일) Oxford Palace Hotel에서 많은 우리 동문들을 비롯한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칠순잔치를 벌였고, 영부인 김영애 수필가께서는 금년 1월 17일(토) 분위가 있는 Mac Cafe에서 40여명의 문인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수필집 <사각지대의 앵무새>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유별난 '남편사랑'으로 71년 동기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긴 Mrs. Krim 왕 "미운사람 딱 하나 더 준셈"으로 치자고 했으나 당직도 바뀌며 문인들 치다꺼리를 하던 Dr. Kim은 "내가 이만큼 된 것도 다 마누라 덕..." 이라고 싱글 병글

**강유구(71) 동문 제18회 합춘학술상 수상:** 지난 2014년 12월 16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합춘학술상 및 제11회 장기려의도상 시상식에서 강유구(71)동문은 양석균(86), 김종일(90), 임재준(94)과 함께 합춘학술상을 수상했다.



**조세진(71) 동문:** 한국주산의학회 초청으로 11월 15일 아산병원 대강당에서 Next Generation DNA sequencing and its application in Clinical Medicine 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발표했다. 조동문은 캔사스의대 명예교수이며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nd Genomics의 창립 Member 이다.

## 7차 대한주산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일 15일(토) 장소: 서울아산병원 대강당 11월 15일(토) 14:00~17:00



**정균희(72) 동문 서예교실**  
그동안 Harbor UCLA의 정신과 교수직을 퇴임하고 원래 전공인 서도로 돌아온 설탄(雪灘) 정균희 서백(書伯)은 지난 12월 초 LA의 한국교육원에 서예교실을 열고 1주에 1번씩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정동문은 1962년 중학교 2학년때 붓글씨를 시작해서 서울대 재학 중 1967년 전국 학생 휘호대회에서 최우수상(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68년에는 김충현 선생의 지도로 신문회관에서 '同研展'을 개최하였으며 국전에도 입상하는 등 필력(筆歷)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그의 아호가 보여주듯 활활타는 목탄으로 희디흰 백설을 지금글 태우는 필력(筆力)도 무시할 수 없다.



## 66년 동기 소식

이번 연말에 색다른 새해 맛을 해보기로 하고 Tahiti, Bora Bora를 포함한 South Pacific French Polynesia를 8 동기부부 (이번 여행을 처음부터 계획 준비하고 karaoke를 하기위해 출발전날 21" TV까지 사가지고 와서 karaoke 기계와 같이 들고 다니는 열성과, 66동기의 영원한 터줏대감, 김용재 부부를 비롯 노재선, 정양수, 윤락승, 김의신, 김충규, 민발식, 최순채 부부)가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모처럼의 여행에 노재선 동기가 몸이 불편해서 예정대로 여행을 즐기지 못한것이 아쉬웠지만 무사히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1월 10일 이곳 뉴욕동기모임이 있었고 거의 다 참석했으나 이명희 부부는 사는 동네 한인 여고생 가출 행방불명사건으로 volunteer로 일하느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딸자식 가진 모든 부모를 마음처럼 하루 속히 happy ending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California에서 시작하는 동기모임(현재 19 부부 참가 예정) 더 많은 동기들이 참가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 최순채



## 68년 동기 소식

68년 졸업동기들은 서울에서는 평생 헌신적인 김상우 동기회장과 박용현 총동창회장의 리더쉽으로 매달 세번 째 목요일에 압구정동 한일관에서 모인다. 한편 미국에서는 골프를 주로 하면서 모이는데 동부에 살고 있던 정경일, 김철, 김주평 동문에 의하여 약 30년 전부터 왕모기가 많기로 유명한 오션시티에서 시작 되었다. 그 후 유우영, 고남규, 노영일, 임윤명 주선으로 거의 해마다 여름에는 온 가족이 시카고, 미쉬간, 아틀란타, 오하이오에서 모였고 젊어서는 겨울에는 처자식을 집에 남겨놓고 남자들만 후로리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에서 5박6일 매일 36홀을 쳤다. 1999년 여름 최철이 주관한 18명 부부가 참가한 페블 비취에서의 모임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됐고 2000년 이견일이 주선한 골프의 원산지 쉐 앤드루 울드코스에서 모였던 일이 특이한 것이었다. 광우병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서 소고기를 먹었던 동기들 아직도 건강하다.

우리 동기는 103명 졸업 후 66명이 미국으로 왔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체능시험을 치루고 입학한 경력이 있어서 육체와 정신을 연마하는데 필수인 골프모임에도 많이들 참여한다.

근래에는 이규달, 서운석, 서진석 동문이 주관하여 지역적으로 중간이 되는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주로 부부동반으로 모이다가 지난 3년간은 워싱턴 DC 근처 버지니아에서 모였다. 나이가 들어서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근처 버지니아로 은퇴를 많이들 하는데 지난번 모임은 버지니아에서 10월 6-9일에 있었다. 미국에서는 골프를 맛있게 즐기던 한민원, 김경탁과 이규원, 서관우 동문이 타게 해서 가슴이 아프고 김태기와 임윤명 동문이 일산과 인천으로 나가서 섭섭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팔을 휘두르고 허리를 돌리며 골프를 치면서 우정을 나누기 위하여 모임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주신 복이다. 얼마나 더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내년 가을에도 서진석 골프회장 내외분과 힘을 합하여 워싱턴 근처에서 우리 모임이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요즈음 메달리스트는 김주평, 김영덕, 김철이고 가장 유망주는 신규호, 주광국인데 내년의 시합을 위하여 모두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 서운석(68)



2014년 10월 6일 Stonewall Golf 장에서 신규호, 김철, 문광제, 김주평, 주광국, 신용계, 서진석, 정재성, 김진홍, 서운석

## 70년 졸업, 45주년 동기 모임

45년전 시계탑을 떠나 또 한번 같이 모임에  
총각들은 할배가 되어 할매랑 같이 낚시 나섰고,  
얼음나라 꿈인양 했던 때  
사방 흩어져 반세기  
아픈 사람 안 아프게, 다친 사람 고쳐가며 살아온 우리들  
고향에 있던 벚들 합해서 어릴적 창경원 동물원 구경가듯  
곰, 고래, 독수리, 얼음 구경하러  
이렇듯 모여  
옛 이야기, 울 이야기 나누며 우리 놀아 보세나,  
지금부터 45년후에는 까마득한 기억만 남아 있을 것이구려,  
오늘은 마음껏 술 잔 나누고  
맛있는 것 나누어 먹고 무진장 놀아보세

May 28, 2015	Vancouver, Canada	6:00pm
May 29, 2015	Cruising the Inside Passage	
May 30, 2015	Ketchikan, Alaska	8:00am - 2:00pm
May 31, 2015	Juneau, Alaska	9:30am - 11:00pm
June 1, 2015	Skagway, Alaska	8:00am - 5:00pm
June 2, 2015	Sitka, Alaska	9:00am - 4:00pm
June 3, 2015	Cruising the Hubbard Glacier	6:30am - 12:00pm
June 4, 2015	Seward, Alaska	7:00am
Transfer to Anchorage Airport		
유철희 Email: Chul You (ChulYou@wavecable.com)		

남가주 지부 신년하례식 및 Annual Ball 대성황



일취월장하는 남가주지부(회장 76, 최광휘)에서는 지난 1월 24일(토) LA의 Oxford Palace에서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Radio Korea의 이창록, 최윤희의 만담, 음대동문 김영균 악단의 밴드에 맞춘 '60-70 가수' 주성 군의 노래로 화끈하게 음미년의 년초를 장식하였다.

제약회사의 보조가 없어도 자기 돈 내고 donation까지 해가면서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가 가벼워 질수록, 더 모교와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모양이다. 이날 기울어져가는 재정에 보태 쓰라고 서예가 1분(72, 정근희), 화가 3분(오순자-Mrs. 김태웅 63, 김명원 68, 김명호 75)이 회사한 작품들을 경매과정을 통해 권일성(68), 김성환(71), 최광휘(76), 차민영(82), 백지혜(88) 동문들이 구매하여 2,800불을 동창회에 입금 시켰으며 입춘수(63, 100), 전희택(64, 500), 전영균(65, 100), 강명식(67, 100), 윤병인(68, 100), 변영석(69, 100), 김성환(71, 300), 박진국(71, 100), 은기철(71, 300), 정경화(76, 300), 조경구(78, 800) 동문 등은 현금으로 donation 해 주었다.

한편 지난 3년간 이사장으로 수고해준 전희택(64)동문의 후임으로 김흥서(69)동문이 바톤을 이어 받았다. - 최광휘(76)

Greater Washington Chapter Annual Party

지난 11월 13일 Washington 근교에 있는 우래목에서 Virginia & Greater Washington chapter의 연말 party가 있었습니다.

지난 15 여년 동안 회원 감소에 따라 활동이 정지됐으나 근간에 다른 주에서 은퇴와 더불어 이곳 자제 분들 곁으로 많이 이주한 결과 이제는 58명을 갖춘 대가족이 됐습니다. 이자리에서 Greater Washington Chapter의 재 출발을 다짐하며 총무에 조병선(71), 회장에 김진수(66)를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5월과 9월에 골프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때는 골프 안치는 회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 김진수(66)



음미 새해에 바라는 희망

허선행(64) - 나 자신에게 바라는 것: (1) 온 몸을 많이 움직이자 허 끝만 조심하면서, (2) '일' 은 최상의 오락이다. (3) 자존심(Self Esteem)과 남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 잊지말자.

내 아내에게 바라는 것: (1) 우선 건강하소. (2) 사랑은 옛날 처럼, (3) 맛있는 요리 계속 개발하소.

서윤석(68) - 나 자신에게 바라는 희망: 서서 오줌을 누지 말고 변소청소를 자주 할 것이며 손자 손녀를 돌봐줄 때 부화뇌동하며 너무 좋아만 하지 말고 위엄을 갖추고 군기를 잡을 것.

아내의 말대로 근육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요가도 해서 배에서 군살을 빼고 유연성을 높여서 골프장에서 비거리가 증가시켜 돈대기에서 이등을 목표로 할 것. 일등은 드림클럽 내야 되니까...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하여 더 많은 동서양의 고전을 공부하고 마음을 정화하고 체력을 기르면서 더 정진할 것. 그리고 관심이 없거나 교양이 부족하신 분들께 내가 쓴 글이나 책을 주려고 하지 말 것. 재수가 좋으면 용변 중에 잠시 읽어 주었다고 하던가 아니면 휴지통으로 그 작품이 들어가는 비극이 일어나니까...

아내에게 바라는 희망 사항: 한국 연속극(미생, 세번 결혼하는 여자, 동치미 등)을 좀 덜 보고 미국방송(침울한 CNN 뉴스나 스포츠)도 가끔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라이마 오하이오에서 워싱턴 근처 버지니아로 이사를 온 후 주로 우리 한국사람들만 만나니 영어회화 능력이 줄어들고 이 나라의 주류인 미국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TV방송에서 들은 것을 의사인 남편에게 지시하거나 과학적인 검증 없이 방송된 것을 숄선수범해서 실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혼돈에 오염된 가능성이 많은 중국산이나 일본 식품을 멀리하면서 새해부터는 건강하게 지냅니다. 일요일 예배시에는 늘 되풀이되는 평생 들어오는 성경말씀을 아직도 기억을

뉴욕지부 의대 동창회와 함께 송년회를 마치고

지난 7월 서울대학교 뉴욕지부 동창회 (이하 서울대 뉴욕 동창회)는 순서대로 의대 출신의 회장을 물색 중에 북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장인 서인석 동문, 심인보 동문 등 몇몇 인 사들의 강력한 권고로 회장직을 떠맡았다. 예기치 않은 동창회장을 맡게 되어 송년회 준비는 너무나 벅찬 큰 임무였다. 연말 송년회를 서울대 뉴욕동창회와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와 합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여러 난관과 문제 점을 극복하고 마침내 11월 22일(토)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보통 20-30명의 의대동문을 포함, 150여명이 참석하던 송년회가 이번에는 105명의 의대동문을 포함 총 270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서인석 회장의 많은 양보로 서울대 뉴욕동창회에 의대 뉴욕지부가 참여하는 명분으로, 지부회장이며 의대동창회 수석회장인 한민우 동문이 의대 대표로 송년회를 준비하기로 합의하여 해결되었다.

많은 의대동문들은 의대의 위상이 확실히 나타나는 송년회를 바랬을 것 같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여러 단과대학이 모인 서울대 뉴욕동창회에 의대만 크게 부각되는 것도 타 대학의 눈총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의대의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았다.

의대출신 동창회장이 의과대학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 없고 또 의대를 특별 대우 하고픈 마음도 없을 수 없었으나 그럴수록 의대가 겸양지덕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105명의 많은 의대동문들이 참석을 해서 의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위 의대의 체면을 세웠다고 보는데 동양문화의 특징인 체면 문화가 내속에 살아있음에 씁쓸했다. 많은 의대 동문 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응원차 참석하신 것이란 생각도 든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적지 않은 돈을 쓰면서 걱정도 많았으나 프로그램을 좀 더 재미있게, 함께 즐기며,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과 푸짐한 경품 등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서울대학교 타 대학들과 다르게 일체성, 단합성 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에 이날은 서로 부둥켜 안고 일심으로 동문으로 확인하는 단합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결과는 흡족했다.

많은 경품과 풍성한 파티를 위해서 프로그램 책자를 16면으로 늘려 광고협찬, 실물과 현금 경품, 후원금 등 총 4만6천여불의 수입을 올리고 3만8천불의 지출로 8천불의 흑자를 보았다. 특히 함춘회에서 현금 500불, 63년동기회에서 300불 선물, 고 이규용 선배님의 200불 경품, 고국 왕복비행기표, 소공동 롯데 2박3일 숙박권, 노트북, 태블릿 등으로 풍성하기 그지없었다.

전례 없이 270명이란 대식구가 행사장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웠고 댄스 후로 워는 항상 만원이었다. 특히 이사장으로 회장을 도와 끝없는 에너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고하신 심인보 동문부부의 활약이 돋보였다. 또 개회사, 축배 등에서 워트 넘친 멘트는 일품이었다. 백승원과 한민우 동문부부의 'Psy'의 말춤 공연은 행사장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86세의 노령이신 공대 동문께서 1만불의 장학금을 약속하시는 분을 보이시어 즉석에서 약대동문 두 분이 2만불을 약속, 3만불의 장학금이 모금되었다.

오호 통재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98세 이규용 선배님이 동창회 송년회 소식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6일후에 작고하셨다. 이규용배 골프대회에 6년전 9홀을 도시고 올해에도 추계골프대회에 근접상 200불, 이번 송년회에 현금 200불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선배님! 천당, 만당, 극락에 가셨음에 틀림없으리라. 가신 육신 관위에는 이 곡승용이 빨간 장미와 서양 오키드 난으로 장식해 드리겠습니다. 삼가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멀리 로스앤젤레스에서 참석한 이원택(시계탑 편집장) 동기와 시간이 없어 감마목에서 점심 한 끼만 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서울의대 북미주 동문회와 서울대 뉴욕동창회가 한 몸이 되어 즐긴 감격, 글로 표현할 길이 없고 앞으로 많이 함께했으면!

오는 오월 춘계골프에도 의대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곡승용(71, 뉴욕지부 회장)

못하고 집에서는 바이블을 열어도 안 보면서 이 나이에 위험한 고속도로를 달려서 바이블 클래스에 같이 가자는 남의 말을 따르지 마시다. 유명한 신학 교수의 말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과 10절만 잘 알고 실행하면 된답니다.

일단 쇼핑한 물건을 물리러 가지 마시다. 그리고 내가 쓴 글의 철자법을 고쳐 줄 때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것도 몰라요!" 하면서 너무 딱딱 거리지 마시다. 그리고 하루 세 끼를 건강식사로 챙기시느라고 평생 힘이 들었으니 새해부터는 집에서는 한 두끼만 먹도록 하면서 쉽게 살아보시다. 맛있는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나두섭(73) - 새해에는: (1) 무슨 일을 할때 반드시 끝장을 내려고 하지 말고 어려워면 중지하였다가 힘을 재정비하여 마치도록 한다. (2) 판단은 즉시 내리려 하지 말고 두고두고 생각해 보고 남이 절정하는것도 보고 천천히 하도록 한다. (3) 아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의견을 표현은 하되 당장 따지는 말고 일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I told you." 라고 하도록 한다.

오동석(72) - 동문들!

본재를 즐기시는 친지분이 4-5년 전에 저에게 선물할 만한 귀한 것을 구했다고 이야기를 꺼내서 흘려듣고 말았는데 세모에 느닷없이 선물을 하나 전해 받았습디다. 그런데 받고 보니 이 꽃이 바로 60년전 제가 초등학교 1-2학년때 저의 아버님께서 어디에서 작은 가지를 얻어다가 뿌리를 내어 꽃을 피워 아주 좋아하시던 기억이 생생한 바로 그 꽃이로군요.



모과(木瓜) 나무의 사촌 되는 매담(梅棠)이라는 꽃나무로 제가 선물받은 것은 한나무에서 두가지 색깔의 꽃이 필 뿐 아니라 꽃 한송이에서 두가지 색깔이 섞여 피는 종류로 Toyo-Nishiki 東洋錦라고 해서 일본에서 본재로 인기가 높은 꽃나무입니다. 받을 때는 꽃망울 두 개가 수줍은듯 움크리고 있었는데 이 두개가 피어나더니 김새가 관찮다고 느꼈는지 다른 꽃망울들이 다투어 피어나는군요. 새해 인사로 보내드립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평안, 자족하시고, 홀로 조용한 시간 더욱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 이규용 선생님께서 작고

이규용 선생님께서 지난 11월 28일에 98세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1916년 11월 14일에 서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전주 이씨 가정에서 나셨고, 8남매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1941년에 성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1943년에 동경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과 결혼하시고, 딸 두분과 아들 한분을 가지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한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소아과를 전공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Paterson, NJ에서 소아과를 경영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신경질환으로 작고하신 후, 2000년부터 New York Southampton에 거주하셨고 현재 사모님과 같이 지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 싶이 이 선생님은 우리 동창회 제2기 회장(1973-4)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총무를 했습니다.

이규용 선생님께서 작고하시니 슬프기 짝이 없습니나. - (노용면 55)

### 李圭瑢 안드레아 선배님 追慕詞

선생님은 소아 전문의로서 넓고 깊은 자애와 은덕으로 인술을 베푸시고, 은퇴하신 다음에는 자선적 봉사활동을 여러 길로 즐겨 해 오신 선생님의 일생 여정은 일사불란한 선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첫째로 선생님은 평생 천주교 신도로 근력이 닿는 최근까지 성당 미사 참여 하시며 천주님을 경배하고, 교우와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로 모교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 2대 회장 당시 동창회를 비영리 자선단체로 뉴욕주에 등록을 성사 시켰으며,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지극하신 열정과 사랑으로 후배 동문 격려를 즐겨 하셨습니다. 바로 지난 11월 22일에 있었던 서울대학교/서울의대 합동 연례기념 만찬회 때는 입원 치료중 이심에도 불구하고 인편으로 기부금 일부를 보내주시어 만찬의 동문들이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셋째로 선생님은 미주 서울대 동문의 Golden Club의 창시 회원으로 각 단과대 동문들과의 친교도 즐기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준행 회장님과는 각별한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의대 동기동창이시며 미주 서울의대 초대 동창회장이셨던 고 이광수 교수님이 고국 서울에 나가 사실 때는 두 분이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 경성제대 의학부 동기동창들과의 재회도 수차 참여 하여 친교 하시었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손자 Pop & Classic Music star Eugene Park의 한국순회 공연에도 동행 하시며 즐기신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부가 South Hampton 병원으로 분안 갔을 때, 멋지고 친절하신 중년의 숙녀 receptionist가 Dr. Kyu Yong Lee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환한 웃음으로 저희를 맞아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타운 도서관을 비롯해서 지역 사회에 부단히 봉사하시며 베푸신 너그럽고 인자하신 이웃사랑에 감복한 결과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나머지 85%가 인간 관계였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더 바라지 않고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눈빛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 준다면 지상의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거룩하신 지상의 선행 봉사, 천주님이 가삼하시어 천주님 계시는 천당에 안주 하시옵소서. - 12/02/2014 이희경(61) 봉독

### 경탁이 형을 추모하며



경탁이 형!

아무리 人命在天이라 하지만 天壽를 다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 이렇게 붓을 들게 하니 이게 무슨 경우인지 한편 야속하고 애똥하이다.

형과의 인연은 55년 전 의예과에서 부터 시작했지만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졸업 후 해군 군의관 시절인 듯 하오. 늘상 이 사람보다 한두 걸음 앞서가며 뒷사람을 놀라게 하더니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데도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군요. 이 무슨 청천벽력의 소식이란 말이오.

의예과 때 배운 불어로 본과에 올라와 다른 동기생들은 영어 교과서로 공부할 시 유독 불어책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들을 놀라게 했고 의학도이면서도 동양화에 정진하여 의과 대학생 때 국전 동양화부문에 당당 입선을 하여 우리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하였소.

해군 입대 첫해에 우리 둘은 나란히 해병 포함 상륙사단 1연대 1대대, 2대대 군의관으로 배속받아 같은 방에서 하숙을 하던 일 그러나 그것도 얼마 안되어 청룡부대 월남 파병으로 끝나고 말았지 않았오. 그 당시 청룡부대 군의관 차출은 군번 순서대로 째라 보냈는데 그 당시 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던 그곳을 해당도 되지 않는 형은 말리려는 우리들을 뿌리치고 자원입대하지 않았오.

그 밖에도 충청도 완고한 민씨 집안 장남으로 태어나서 북미주에 이주하는 것도 집안에서는 놀라운 일이었었을 것인데 벽 안의 French Canadian(Patricia)과 결혼했으니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되오. 이런 것들을 두루 생각해보면 형은 작은 체구에 걸맞지 않은 진취적인 선견과 용기를 갖춘 거인이었소.

Montreal에서 training을 마치고 California Napa area로 옮겨와서 그간 격조했던 우리 관계를, 화회를 핑계삼아 형택에 몇번 방문,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이후 오하이오로 와서 일할 때는 지역적으로 가까워져서 우리 집에 방문 며칠 묵고 갔던 것이 이제 좋은 추억이 되었소.

직업에 얽매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동양화도 다시 시작 '나는 이 다음에 모택동의 주치의가 되겠다.'는 농담대로 중국을 몇번씩 방문 자전거 빌려서 온 데 다니며 필담으로 소통하면서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그러지 않았소. 당나라 시인 두보를 필두한 시와 송나라 휘종을 비롯 중국 서예화 등에 심취했던 형이 아니었소.

늘상 소탈하고 티없이 순수하며 그러나 모든 일을 근본부터 추리해가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 이었으며 의사가 아닌 과학자가 되었어야 될 사람이었소. 젊은이 같은 순수한 꿈을 좇아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 실현하려는 노력은 우리 같

은 범인의 눈을 휘둥그러지게 만든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소.

중국 흑도자기가 그랬고 형의 dream house가 그것들 아니었소. 중국 흑도자기에 매료되어 재생을 해보겠다고 세계에 두 점박이 없다는 일본에 소장되어있는 이 도자기들을 전시하는 틈을 타서 멀리 일본까지 가서 직접보고 집에 와서 재생해보겠다고 집에 가마솥을 만들어 여러 번 시도하지 않았소. 비록 뜻을 이루지 못했어도 ceramic journal에 내놓은 형의 논문들을 다른 사람들의 논문에 reference로 인용할 만큼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내어 우리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하지 않았소.

그곳 dream house도 용기있게 하나하나 이루어내어 어느 때는 저런 큰일은 전문인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우리들은 했지만 혼자 배워 해내는 형을 보고 우리들 다 놀라지 않았소. 이번 사고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지 못내 안타깝고 화까지 치밀어오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오.

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어찌 한두 장의 글로 매꾸어 지겠소. 우리는 의기투합 몇 번에 걸쳐 여행도 같이했고 가끔씩 전화통을 대고 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좋은 추억이 되었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전화를 주셔서 내년 50주년 동기 기념 여행에 대해 자기 의견을 피력 이사람도 좋은 의견 같아서 추진해보라고 해 친구들 간 의견 교환 중이었던 이때에 이 무슨 경천동지할 소식이란 말이오. 남아있는 부인 Patricia와 장성한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편히 쉬시오.

어제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안절부절 website에 나온 형 사진을 들락날락 들여다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은 마음을 달래었소. 그 사진에 빙그레 웃는 형의 미소를 보며 언젠가 형이 나보고 '규정아! 너는 사진 찍을 때 너무 경직해있어! 나같이 거울 보고 연습을 해보아! 효과 있어!' 하던 생각이 문득 나서 실소했소.

이제 그런 충고를 해주는 형 같은 친구를 어디에서 구하겠소? 허탈한 마음으로 붓을 놓소.

이보게! 경탁이! 이 무정한 사람아! 잘 가시게! 친구 황규정(65)

### 지제근 박사를 추모하며

우리 62년 동문의 큰 일꾼이고 자람이시던 지형이 먼저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형은 남성다운 준수한 용모에 온건하고 누구에게도 친절함 성격, 지도력, 농구선수로서의 능률한 모습으로 우리 학년의 총대의원 직을 맡아서 모든 62년 동문의 존경을 받고 우리 급우 이미나 여사와 결혼한 유일한 급우 부부가 되어 우리 학년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소신을 지켜 모교에서 병리학을 끝내고 하버드대학에서 소아내병리 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미나 여사도 소아과 수련의 과정을 밟고 계셨던 어려운 시간에도 보스턴학회에 간 저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서 보스턴 쉐틱 농구팬 입을 보여 주셨습니다.

졸업 25년 한미동기모임 (장순필 과대표)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을때,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며 한국 병리학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열변을 토하시던 지형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미나 여사는 제가, 알렌타운에서 10년간 따님 집에 계실 때 가까이 모시든, 강희륜 선배님(고 김성진 박사의 사위)께서 부원장으로 계신 제일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함께 근무하시는 등, 개인적으로 많은 인연이 얽혀있습니다.

한미동기모임에 개근상을 스스로 제정해 받은 저는 지형 부부를 우리 동기들 모임에서 여러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형 사위 부부가 뉴저지에 수련차 와 있는 동안 방문해서 뉴욕 근방 친구들과 회식할 때, 골프에 까말게 탄 미국동문들과는 달리 유난히 하얀 피부색의 지형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후에 3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추억의 남도여행 할 때 저는 다행히 지형과 이희상 이순형 학장님과 동승해서 졸업후 미국 동문회에서 연마한 농담 쇼를 연출 한 것이 이렇게 마지막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인천 길병원 방문 때 조장환 박사와 한국 뇌신경조감도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출퇴근하시고도 무교동에서 저를 만나는 모임에 나와 주셨습니다. 그 후 출렁한 조감도가 출판되어 한국신경병리학회에 큰 도움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 김광우 김성덕 마취과 동문들이 회장직을 맡아 익숙히 알고 있던 한국의 사회장직도 오랫동안 큰 도움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장례식도 의사회 장례로 받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일들을 꾸며놓은 상태에서 천국에서 더 급한 일이 있어 부르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지형!!! 아무쪼록 천국에서 평안히 지내시고, 이미나 여사께 주님의 큰 위로가 베풀어지기 기도드립니다. - 62년 동기 정정수 드림.

#### 표윤호(59) 동문 별세

표윤호(59, 심장내과)께서 뉴저지에서 소천하시었습니다. 천국환송예배 및 하과식은 지난 1월 24일 클리브랜드의 센셋 메모리얼 파크에서 있었습니다.

#### 시계탑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일시: 2014년 11월 22일 오후 4시30분

장소: 뉴저지 포트리, 더블 쉼터 호텔

참석자: 노용면, 이희경, 허선행, 서윤석, 이원택, 이선희

이원택 편집장의 동부방문으로 모처럼 오붓한 편집회의를 기대했으나 시간에 쫓기다보니 이사회의 일부로 전락되어 토론은 생략한채 보고로 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편집위원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email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모든 일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편집위원중 단 한 사람만 반대해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고 있고 세태에 따라 multi-media, multi-test 쪽으로 나가야 겠으나 어디까지나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변죽만 울린 '책임편집제' 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편집위원 1명과 자문위원 1명이 조가 돼서 번갈아 가면서 신문 한판씩 책임지고 취재, 원고모집, 편집, 교정, 배포를 통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16면을 기능별로 나눠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으로 출판위원 1인당 1-2페이지를 전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서울대학 미주동창회보처럼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처지에 과부한 바램이겠지요. 다음번 편집회의 때 모든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紙上法醫

마약 검사

노용면(55, 대뉴욕)



오랫동안 의사생활을 하다 보면, 환자가 진찰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곧 그의 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하루아침 종전대로 법의관실에 그 전날 들어온 케이스들을 검토하고 있으니 47세의 남자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한 예가 있음을 보았다. 병원 의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원인 모를 간질발작(a seizure disorder of unknown etiology)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사건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때 까지 좀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 Annual Scientific Convention에 참석하면서 참으로 잊을 수 없던 일은 1998년 故 송관호 회장의 기발한 idea로 늘 하던 동창회를 뉴욕 버뮤다 크루즈로 바꾸어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서 개최한 것이었다.  
생전 처음인 크루즈 여행이 나를 설레게 했고 지친 몸과 마음을 힐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뉴욕항을 떠나 버뮤다로 항해하는 동안 칠혹 같은 大西洋의 성난 파도가 거대한 배를 흔들기 시작했다. 기쁨의 설렘과 웃음이 넘치던 얼굴들은 서서히 그 빛을 잃어서 더는 참을 수 없는 구토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동창회 측에서 준비한 많은 藥과 wrist bands가 총동원 되었지만 특히 멀미가 심했던 서울에서 오신 동창의 한 부인에겐 그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어 보였다. 누군가가 針을 맞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부인의 남편이 주저하고 있었다. 현대 의학의 접단을 걸어왔고 금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현대 의학의 발전에 앞선 우리 서울의대 졸업생이 고대 의학인 침을 안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針 by Licensed Physician: Medical Acupuncture!

나는 전공인 마취과에서 중요한 pain과 Airway management에 대해 오래전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 pain management는 department chairman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던 중 Medical Acupuncture에 관심을 갖게 되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시작을 하고 싶어 하던 중에 어느 대학 선배님이 UCLA course를 추천해 주셔서 1994년 7개월 동안 UCLA Medical Acupuncture for Physician Course를 수료하고 UCLA 프로그램에서 5년 동안 preceptor로서 가르치다 보니 acupuncture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course는 365개의 acupuncture points도 漢字 표기 대신 WHO가 제정한 기준인 alphabet와 number로 사용해서 (예를 들어 足三里는 Stomach-36, 合谷은 Large Intestine-4, 각각 ST-36, LI-4로 표기) 漢文을 이해 못 하는 Western Physician들이 course를 수료하고 그들의 pain management에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漢文도 알고 東洋哲學 지식도 있고 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에서 365 acupuncture points를 漢文으로 다시 공부하니 각 point의 뜻도 알게 되고 周易, 黃帝內經, 難經, 傷寒論, 四象醫學, 東醫寶鑑 등의 서적들을 탐독하다 보니 그들은 그들대로 철학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다리기로 했다.  
오후에 그 변사자의 부인과 어린 아들 아이가 법의관실에 왔다는 통지를 받아, 나는 그들을 내 사무실로 불렀다. 부인이 영어를 못하기에, 아들이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니?"  
"아버지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샤워를 하고 나오자마자, 온몸을 뒤틀더니 숨을 못 쉬고..."  
"그때가 언제였지?"  
"낮 1시였어요."  
"낮 1시? 왜 아버지가 한낮에 샤워를 하셨지?"  
"아버지가 콜롬비아(Columbia)에서

우리들이 배운 Western Medicine과는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Alternative Medicine(대체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한 Division인 NCCAM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많은 research fund를 배당하여 여러 University Center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National Alternative Medicine Meeting에 참석하면서 NIH

member들을 만나게 되었고 NIH, NCCAM Research Grant Application의 審査委員 (Members, Scientific Review Committee), NCCA (National Commission for the Certification of Acupuncturists)의 시험문제 출제의원 등으로 지난 17년 동안 많은 시간을 무료 奉仕를 하며 나의 본업이 아닌 나의 外道 - Medical Acupuncture를 한 것이다.

NCCA는 Non-Physician Acupuncturist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National Board Examination인데, 그들의 board 초청으로 American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를 대표하여 physician consultant로서 Anatomy of Acupuncture Point 시험문제 출제위원에 위촉되어 365 Acupuncture Points를 Gray's Anatomy를 보면서 review를 하다 보니 본과 일학년 때가 생각이 났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힘들었던 Anatomy를 흥미롭게 다시 보면서 사람은 오래 살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이 후로 나는 큰 모임이나 여행을 할 때는 습관처럼 acupuncture needle과 machine을 항상 갖고 다니며 주위 분들의 pain과 allergy를 도와주었는데 이번에는 뱃멀미를 대비한 acupuncture treatment를 떠나기 전 내 나름대로 literature review를 해보았다. 짐을 꺼리던 본국에서 참석한 동창은 부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침을 시도해 보라고 했다. 모든 눈길이 내게 쏠렸다. 엄청난 관심과 반신반의하는 수많은 눈길들을 뒤로하고 나는 침착하게 내 acupuncture를 시술하였다.

Cook Book 식의 방법을 떠나 나 나름대로 연구한 처방으로 우선 energy treatment를 한 후 몇몇 stomach points, large intestine points와 small intestine points를 이용하여 G-1 system을 sedation 하였더니 얼마 후 그 부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환한

미소와 함께 보내준 "참으로 감사합니다." 란 말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였다.  
그 이후로 dinner후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뱃멀미 뿐만 아니라 온갖 통증의 치료를 하느라 모처럼의 휴가가 더 바쁜 나날이 되었지만 동문들의 고통을 덜어드렸다는 자부심과 보람이 내게 쌓였던 stress를 모두 털어내 주었고 내가 걸어온 外道 medical acupuncture가 자랑스러웠다. 어떤 腧

막 돌아오셨거든요."  
이쯤 되니 내게는 더 이상 정보가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이 돌아가자마자, 그 시체의 X-ray를 찍으라고 지시했다. 내 추측이 틀림없었다. 그의 위장 속에 조그마한 주머니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시체를 부검했다. 담당 병리의사가 그의 위장 속에서 51개의 코카인(cocaine)을 담은 포장들을 발견했다. 코카인을 콘돔에 싼 후 그 위를 알루미늄 포일로 다시 싸는데, 그중 두 개가 파열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의 사인이었다. 이것을 보고 직원들이 놀라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던 터이다. 이러한 케이스를 body packer syndrome(체내 포장증)이라 한다.

공황이나 항구에서 조사가 엄격해지자, 약을 밀입국하는데 버려별 괴상한 방법을 다 쓰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 케이스에서 보는 방법이다. 약을 콘돔이나 비닐장갑 끝에 넣고 싼 후 그것을 알루미늄 포일로 싸서, 지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삼킨다. 그리고는 위장의 기능을 느리게 하기 위하여, 배라돈나와 같은 약을 먹는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중간 상인이 그를 맞아 호텔이나 모텔에 데리고 간다. 그런 후 설사약을 먹여 약들을 배설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기 전에 약물 포장이 터지면 참사가 생기는 것이다. 코카인은 중추신경 대사를 해치기에 몸의 경련도 일으킨다. 여기에 소개한 예에서는 자신이 직접 약을 거래하는 '독자 업자' 인 듯 했고, 가족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눈치가 아니었다.

Reference:  
Young-Myun Rho and Milton Helpert: Deaths from Narcotism in New York City. Incidence, Circumstances and Post-mortem Findings.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66: 2391-2408 (No. 18) 1966. (Gold Medal Award received from the NY State Journal of Medicine)

sician으로서 US Government(NIH)에 많은 시간을 奉仕 하였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였고 보람을 느꼈다.  
奉仕라는 말을 하니 몇 년 전 이곳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Fund Raising Dinner에 참석했을 때 전 뉴욕 시장 Blumberg가 한 말이 생각난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누구든지 three Ws 즉 Wealth, Wisdom, and Work 중 한 가지로 각자가 속해있는 society에서 얼마든지 봉사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Wealth도 없고 Wisdom도 없으니 마지막 W인 Work로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샌디에고로 American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컨벤션에 참석차 가는 중 내 옆에 한 女醫師 (Pediatrics Anesthesiologist)가 별안간 숨을 못 쉬며 고통스러워 하며 거의 faint 상태 였었다. 비행기의 attendant가 산소 마스크를 들고 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의사를 밝히고 손가락으로 코 밑 (水溝 Governor Vessel-26: GV-26)과 머리 위쪽 (百會 Governor Vessel-20: GV-20)을 acupressure를 했더니 잠시 후 모든 증상이 회복되어 뜻하지 않게 \$20짜리 점심을 비행기로부터 무료로 대접을 받았다. 알고 보니 그 여의사도 샌디에고에서의 National Pediatric Anesthesiology Meeting에 참석차 가는 중이었다.

GV-20와 GV-26는 발바닥 앞 湧泉穴 (kidney meridian-1: KI-1)와 함께 three autonomic switch points로 any emergency resuscitation에 도움이 되므로 우리 western physician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한 가지 Medical Acupuncture에서 풀리지 않는 미국의 세계, 그것은 바로 Meridian(경락)이다. 1998년 National Society of Biomedical Research의 Annual Meeting에 guest speaker로 초청받아 opening lecture "Medical Acupuncture for Pain Management" 를 발표했을 때 수많은 scientists로부터 meridian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분명한 답을 줄 수 없어 당황했던 생각이 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meridian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Functional MRI로 acupuncture points를 짐작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근래에 가끔 주위에서 언제쯤 은퇴를 계획하느냐고 질문을 받으면 아무 때고 체력과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 "I will stop right there." 라고 대답한다. 아직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건강을 주신 부모님과 나를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가족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 내가 걸어온 外道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보람이 넘치는 삶을 즐기면서.

外道

이재승(61, 메릴랜드)



은 후배 부인들이 내가 지날 때 "저기 침쟁이가 지나가네." 라고 하면 나 자신도 내가 양의사로부터 針쟁이가 되었구나 하고 착각을 할뻔하기도 했다.

1969년 Johns Hopkins Bay View Medical Center에서 residency train 후 faculty staff로 근무 후 이곳 Baltimore 소재 Saint Agnes Hospital Center에서 34년간(1970-2004) 근무하고 근 20년 동안은 (1985-2004) Anesthesia Department Chairman을 하면서 나는 남보다 한 시간 먼저 출근 하고 제일 늦게 퇴근한다는 신조를 갖고 새벽의 잠막을 뚫고 5시면 출근해 7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내 생활은 2004년 11월 Johns Hopkins에 full-time faculty로 초청받아 join 한 후에도 똑같은 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나의 일생에서 가장 바쁘고 힘들었던 때는 2000년부터 2001년, 내가 NIH 산하 NCCAM의 Research Grant Application 審査委員으로 봉사 할 때였던 것 같다. 대체 의학에는 많은 분야 (약 16 branches: acupuncture, herb, homeopathic, 등등...) 가 있는데 다른 분야들은 각 분야의 전문 PhD들이 심사하는데 acupuncture 분야는 나만이 유일한 physician acupuncturist여서 3개월 마다 (quarterly) 들어 오는 신청 약 90-100 grant applications중 약 9-10 applications가 acupuncture related Grant application 이어서 내가 primary review를 하였다. 9-10 grant applications를 review 하는데 최소 150-200 시간을 소비해야 되니 주중에는 시간이 없고 주말에만 시간이 있어서 모든 할 일을 접어두고 시간을 쪼개어 서류들과 씨름을 하던 그때, 너무도 힘이 들었지만 많이 배우고 수많은 NIH의 National Review Committee member들을 알게 되고 phy-



### 漢文의 體와 韻

如 熙 正 進 묵(57, 후로리다)



해서楷書 행서行書 초서草書 예서隷書 전서篆書

35.5 x 142.5cm  
작품설명:

뿌리 들은 벌이 막 떨어지는 것 같고  
능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은 눈을  
나리는 것 같다  
흰 백사장에 항상 홀로 서서는  
맑은 경치에 돌아가는 것을 잊는다.

작가 미상/ 五言 절구  
서예는 간자체(簡字體)를 안쓰며,  
번자체(繁字體)만을 쓴다.

한문의 서예(書藝)는 (日書道)(中書法) 갑골문자(甲骨文) 금문자(金文字)와 주로는 篆隸楷行草書의 오체(五體)로 쓰여집니다. 진(秦)시 황이 한문자를 통일하여 篆(전)書를 만들었지만 글자 모양이 굴곡이 많다 하여 예서(隸書)로 바뀌어 관용어(官用語)로 쓰였는데 한대(漢代)나 당대(唐代)에 와서는 해서(楷書: 우리가 쓰는 정(正)자와 행서(行書)가 시작되어 안진경(顏真卿) 구양순(歐陽詢) 같은 사람들이 완성하였고 진(晉)나라(A.D. 300년경)에 와서 왕희지(王羲之)께서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행초서(行書와 草書)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많은 서필가가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는 추사 김정희가 유명합니다.

당대(唐代) 이후 미포(米芾) 소동파(蘇東坡) 왕택(王澤) 손과정(孫過庭) 북송대말(北宋代末) 황제인 徽宗(휘종)의 해서(楷書) 등이 유명합니다.

명필가가 되면 자기체(自己體)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자칭 서예가가 백만 명이나 됩니다.

제가 금년 합춘미술전(合春美術展)에 보낸 줄필(拙筆)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 글은 행초서(行書와 草書를 섞어 쓴)로서 가장 흔히 씁니다. 이 특점은 글의 시작은 크고 굵은 글자로 시작하나 따르는 글자는 여러 면의 변화가 있으며 대소(大小) 장단(長短) 농세(濃細: 굵고 가늘어짐)와 비필(飛筆)이 있습니다. 글 전체는 순(順)하게 이어져야 하고 전체 글의 조화(調和)가 이루어지며 좌우(左右)의 글이 나란히 횡렬(橫列)이 지어져서는 안되며 필투배지(筆透背紙: 글의 힘이 종이 뒷면까지 투철한다는 뜻)라 하여 글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이 오언절구(五言絕句)의 詩(시)를 보면 中國 서역(西域)의 돈황(敦煌)의 명사 산(鳴沙山)과 월야천(月牙泉) 생각이 납니다.

중국 시는 잘 아시다시피 四言, 五言, 七言 절구(絶句)가 많으며 되풀이되는 긴 시 율시(律詩)도 있습니다. (白樂天이 유명함) 詩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이 있고 대구(對句)가 있으며 七言 절구는 一, 二, 四행(行) 말의 운(韻)이 맞으며 五言 절구는 二, 四의 말(末)의 운(韻)이 맞으며 끝으로 평측(平仄)이라 해서 중국 말의 四聲(사성)을 맞추어 부르는 음율(音律)이 있으나 한국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국의 근대시(近代詩)는 자유형(自由型)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規則)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자작시(自作詩) 줄시(拙詩) 한수(一首)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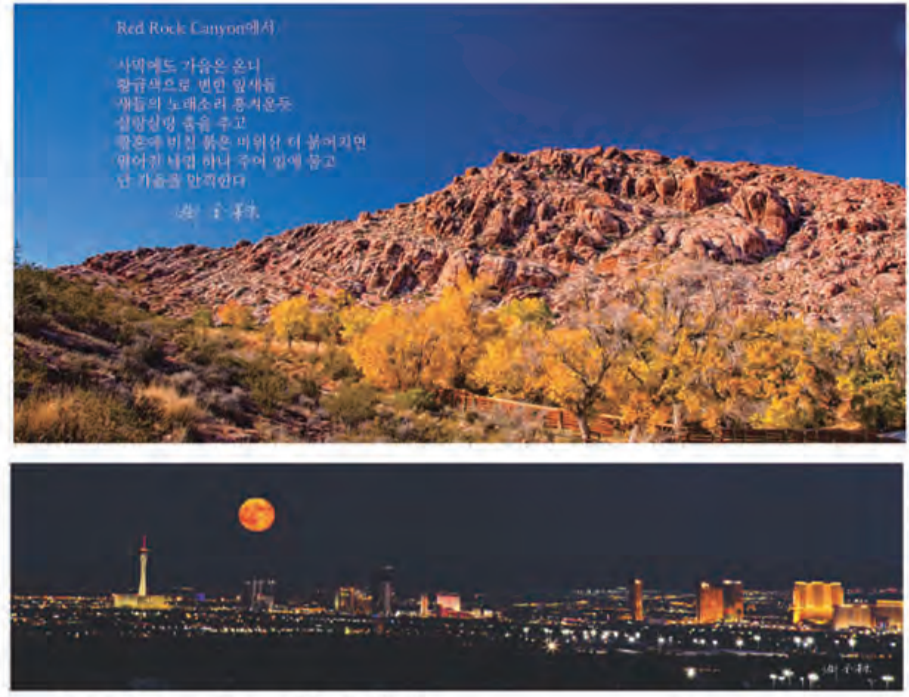
- 隱 退(은퇴: 가는 날을 기다림)
- 〈起〉 朔湖釣舟 小波影 (삭호조주 소파영)  
그믐달 같이 생긴 호수에는 작은 낚시 배가 조용한 물결에 그림자를 비추고
  - 〈承〉 綠園彼岸 白鳥鳴 (녹원피안 백조명)  
푸른 잔디밭 건너편 기슭에서는 흰 새가 지저귀고 있네.
  - 〈轉〉 相依相隨 有伴侶 (상 의 상 수 유 반 려)  
서로 의존하고 따르는 반려가 있기에
  - 〈結〉 吟詩書藝 樂長生 (음 시 서 예 낙 장 생)  
시를 읊고 붓글씨 쓰는 老生(長生)이 나이로다.
- 은 對句를 표시함. ○은 韻을 표시함.

본인은 소싯적부터 붓글씨를 배웠으며, 五七年 서울의대 졸업 후 도미, 六二年 미국 이민이후와 전문의, 三十年間 개인 개업(Lima, Ohio), 一九九五年 은 퇴해서 이곳에서 삽니다. (Windermere, Florida), 슬하에 四女를 두고 있습니다.

### 월남 참전 사진: 김은섭(59)



I am receiving a Bronze star with V medal from General Westmoreland. The gentleman with whom I shook hand is Ambassador Maxwell Taylor, in February 1965 in Qui Nhon



### 2014년 Las Vegas의 추석달

작년 보름달은 모처럼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Super Moon이라고 불릴 정도로 클거라고 해서 추석날 그 큰 달을 찍어보려고 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추석날은 날씨가 많이 흐려서 그 Super Moon을 영영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은 운 좋게 하늘이 맑게 개어서 "하루 뒤 추석 달" 을 찍을 수 있었다. 보통 때 보다 많이 밝고 더 크고 보름달과 거의 일치했다.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며 추석날 찍을 수 없었던 아쉬움을 가실 수가 있었다. Las Vegas Strip는 여러장을 연속적으로 찍어 Photoshop에서 panorama로 만들었다. 달은 따로 더 긴 Tele lens로 찍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온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 옮겨서 최종작품이 완성되었다. 디지털의 발달로 화가가 그림 그리듯이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 김택수(63, 라스베가스)



### Grand Canyon

멀리 계곡 밑으로 흐르는 콜로라도강의 침식과 비 바람의 합작으로 깊이 깊 이 씻겨내려간 지면은 경이롭고 신비로운 수없이 반복되는 계곡이 되었네 그위에 떠있는 새하얀 뭉개구름 아래로는 멀리 떨어진 곳의 계곡이라도 감추려는 듯 흰 안개가 자욱히 깔려 있다. 떠오르는 태양의 열기에 녹아 없어질 것을 아 랑곳 하지않으면서.



### Bryce Canyon

옆에 있던 지반이 내려앉아 드러난 크고 작은 모래바위의 기둥들은 마치 열 병식을 하는듯하다. 때마침 내린 하얀 눈들은 병사들의 머리와 어깨를 덮고 주 위를 하얗게 도배하였다. 눈덮힌 벌판에 굴굴히 서있는 바위기둥들은 개선장군 의 기둥같이 당당하다.

경치 사진 촬영 기법: 일반적인 경치 사진 찍을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 운것 먼것이 다 선명하게 나오게 찍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두사진 모두 심도를 깊게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F/16에 놓았고 삼각대 없어도 흔들리지 않게 셔터 스피드는 1/250초에 놓았습니다. 감도 ISO는 첫사진은 200 두번째 사 진은 흐린 날이었으므로 400으로 놓았습니다. 초점거리는 찍으려는 화면이 다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첫사진 45mm, 둘째사진 35mm. 눈이 내린 경치는 노출 을 좀 밝게 하여야 눈색깔이 하얗게 나옵니다. - 나무섭(73, 남가주)



## Green Project Corner:

안녕하세요 Green Project 동문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연말을 맞이하여 모두 함께 만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참 아쉽고 지난 한해 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때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사시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 Green Project Monthly Committee meetings (October - December 2014)

Since late October 2014, there have been progresses in several areas of the Green Project (GP) committee work. The monthly GP meeting in New Jersey continued. In October, Dr Shin원석 (Won sock Shin 88, Internal Medicine, far right) from Virginia/Washington DC area joined us with his wife (second from left). Dr Shin and the committee discussed the visions of the Association and particularly the needs of our young alumni and the effective ways in which the GP committee and members can assist them. Dr Shin also leads the DC area GP group and gave us the summary of the local GP group activities. Residency program related issues including interview skills were discussed as the potential subjects of the forum at the 2015 convention for which Dr Shin will lead one of the four themes, Private Practice Building.



The following week (October 23rd), another local GP meeting was held in Boston by Dr Mooyeon Oh (89, GP Chair), Dr Eun Yong (2014, Research Fellow, MGH) and Dr Jeong Hyun Yun (Fellow in Pulmonary Medicine, Brigham and Women's). Dr Yong wrote: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을 날, 보스턴에 위치한 맛있는 한식집 서울 설렁탕에서 (비공식) Green Project 모임을 하였습니다. 서울 설렁탕에서 맛있는 식사를 한 후 근처에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집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Geriatrician으로서의 삶, 한국/미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내년 6월에 있을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 등등을 나누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보스턴 주변의 동문 여러분, 다음에는 꼭 함께해요!"



The second Maryland, Virginia and DC area GP meeting was held on November 1st, 2014 at Dr Wonsock Shin's residence in McLean, VA. Eight members were present. From left back row 박종철 신재현 신원석 남명호 장세권 송경민 김근화 김유리 신재현선생 부인 (이대의대졸). Next year's scientific meeting and career building in various fields of medicine were the topics of the day. Additionally, the DC area GP directory was completely updated by Dr Shin and others.



On November 22nd 2014 the SNUCMAA of NA Annual Ball NY region was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nual Ball at the Double Tree Hilton, Fort Lee, NJ. GP members 박성철 (99, New York, NY, far left), 남영재 (94, Nashville, TN, far right), 서귀숙 (84, Rochester, NY), 한창규 (81, Philadelphia, PA), 이선희 (81, NY) and 오무연 (89, NJ) 동문님께서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성철 동문께서 '최연소' 동문으로 의대 깃발을 들고 연회장에 들어 오셨습니다.

The Board of Directors Delegate meeting was held preceding the Ball where Dr 박중신 (89, second from right) from the SNUCM dean's office presented fundraising for the new library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e elsewhere in this issue for details).

11월 GP meeting was held the following morning on November 23 Sunday 10am at BB Bakery, 354 Broad Ave., Leonia NJ. 서귀숙 선생님 (84, Radiology, University of Rochester NY, far left) & 남영재 선생님 (94, Cardiology,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N, middle) joined us. Our topic was planning of the Annual Convention GP forum on two main themes, Research Career Development and Women in Medicine and Science.



On December 14, 2014 an informal GP meeting was held at the BB Bakery for Christmas card writing to new young GP members. Initiated and planned by the

GP Chair Dr Oh, a new tradition was born. This hand-writing of Christmas Cards with personalized greetings was such an unexpectedly pleasant task and gave us the opportunity to look up member information on Facebook, website, emails and through personalized communications. This was an opportunity for the committee member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individual members and get to know them one step further. This took considerable time but in the end 57 hand-written cards were sent out and this marked one of the beginning moments of "connecting to the new generation and redefining the SNUCMAA".

We also received surprising returns and replies through Facebook, text messages, emails and hand-written X-mas cards (see the photo for example). We realize even in this day and ag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othing tops the old-fashioned personal touch! In the end, many have volunteered for participation in the GP sessions of the 2015 convention.



### Recruitment of Dr Young Jae Nam (94) to the GP committee



November marks another important event in the history of Green Project. Dr Young Jae Nam (94), MD PhD, assistant professor of Cardiology at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N, has joined the GP team and assumed the co-chairship of the Research subcommittee. Dr Nam received PhD in Cardiology research at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NY, followed by residency and fellowship training in Internal Medicine and Cardiology.

Having been very active on SNUCMAA-US Facebook group and having attended the November GP committee meeting in NJ in person, Dr Nam has played a major role in seeking and recruiting convention speakers for the 2015 GP scientific session. As of today, we have exceeded our target number (16) for the 4 hour GP sessions largely thanks to Dr Nam's extraordinary effort. Dr Chang-Gyu Hahn (81, chair of the GP research committee and Secretary of SNUCMAA of NA) and Dr Won Jae Huh (02, GI pathology fellow, Vanderbilt University) were additional important players in this effort.

Belonging to the younger generation, Dr Nam has also been an important voice in expressing the pivotal generation issues that separate the old and new in our Association. The following are excerpts from the email exchanges among committee members that crystallize the main issues confronting us. The first is by Dr YJ Nam to the Committee, and the second is by Dr CG Hahn to Dr Seo, President, who was in Seoul attending the Hamchoon event at the time.

#### 선배님들께

... I believe that whether Green Project can grow beyond a local networking pretty depends upon how many young members show up in the convention 2015. I think we all are on the same page with this assertion. Even more important thing, however, is to make them return to the future events and become a part of SNUCMAA/Green Project in the future. Toward this goal, the meeting should be enjoyable and entertaining to young members as much as to senior members.

I am concerned about how young members will feel about the banquet, assuming that it will be pretty similar to the one we had last Saturday. It is straightforward to anticipate their responses to such a party if you look back your first experience in SNUAA or SNUCMAA party. There exists a big cultural barrier between senior and young groups in SNUCMAA despite some common things shared by both groups. I am worrying that we may introduce our young members to "the common path" that most of us had gone through in the past, "first attendance in a local alumni meeting -> being overwhelmed by huge generation gap (biological but more importantly cultural) -> staying away from the SNUCMAA or SNUAA". I have learned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senior members to understand this path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an insigh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cruiting young alumni to SNUCMAA or not.

I do understand that it will be important to maintain the entire structure/program of the convention which has been developed by senior members with their great deal of time and effort. However, it may be worth giving our thoughts on how to entertain young members and what they will really like, hopefully within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nvention. In this regard... it would not be sufficient to make young members enjoy the banquet as a "party" or "GP gathering". Although it will be impossible to satisfy everyone, it will be important to make every effort toward our goal, which has been unachievable for more than a couple of decade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why young members would not come back to SNUCMAA and to try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from the past. I suggest that we actively seek for opinions on this issue (banquet or GP gathering) from young members... (YJ Nam)

#### Dear Dr. Seo,

... You have seen the letter that Dr. Oh has sent out to all GP alums. This letter, which represents the team effort of the GP committee, was written as an invitation to the convention as well as an introduction of our GP activities. Even more importantly, it was also written as a first step to mark this year as a "turning point" for the association's view on GP activities. GP activities are no longer just to increase the number of young alums attending the convention this year. That approach has failed repetitively. The goal is to make them want to come again.

## Green Project Corner:

The only way to do it, as we see it, will be to have them truly integrated into the association. How do we do that? Via person to person relationships. This is a signature concept of the GP committee this year. Would you remember Dr. Oh's dot matrix in her previous letter? Each dot exists in the schematic because it is connected to the next and to the next and the whole constellation of this dot matrix in and of itself will represent the body of the association. To reflect this, Dr. Oh's letter was in fact written with a personal tone, speaking about her relationships to other alums and etc, rather than as a cut and dry administrative letter. Another signature concept is that GP activities are not venue or fellowship based (such as golfing, banquet and etc) but on the substance, specifically on careers and other important issues as in GP forums.

With this as a background, Dr. Seo, I would like to make a couple of proposals. First, how about we make it known explicitly to the association that this year is the turning point for the next generations in the association. I propose that we add a theme title to the convention in all our advertisements. If it reads now, "the 2015 SNUCMAA annual convention", how about we add a theme subtitle following that. Such as "the 2015 SNUCMAA annual convention: The turning point". Or "Next generations" "Forward to the future" (Dr. Nam seems to have lots of great ideas on these things...)

I hope that I am not sounding too cheesy but with the idea of adding a theme title aside, the real intent is to leave a marking on GP activities for this year. Otherwise, there is a good chance that this will not be followed up next year. Then, we will be in the same position.

In doing so, I propose that we let the association know that GP activities have been our focus this year and yet we are now kicking up a notch and redefining it as the theme of this year. As such, it will be reasonable to propose an expanded budget.... As we convince the association that this is a turning point for GP, it will be most reasonable to pour resources, such as GP funds, into the our activities and to expect that these activities will be the priority for distribution of funds and other resources.

Dr. Seo, it is your leadership that brought us together for the GP committee. GP activities are indeed the key to the future of the association. Clearly, what we are trying to do requires all-out efforts of the association, which explains why it never worked before. Creating something new takes a group of special people. We have it in the committee and you. This is a rare opportunity to turn things around and make difference. Let's figure out ways to pour resources into this.... (CG Hahn)

## Letter to the Green Project Members from the GP Chair

안녕하세요 Green Project 동문여러분,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 Green Project (GP) Committee Chair 오무연입니다. New York area는 이제 많이 춥고 초설도 내렸습니다. 즐거운 연말을 맞이하여 모두 함께 만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참 아쉽고 지난 한해 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would like to share a brief summary of 2014 GP activities and the future plan, particularly for the upcoming year 2015. The goals of our GP have been to mobilize young members to the SNUCMA in US via meaningful group activities and exchange of ideas, to enhance the careers and lives of current and upcoming generations. Thanks to the support and enthusiasm of the alumni, 103 members have joined in the SNUCMA in US Facebook group and 105 members (post 1980 graduation) have been identified with valid email addresses.

동문여러분 한분 한분이 한 두사람씩, 어떨 때는 대여섯명씩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이 directory는 완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끊어졌던 동기 Dr. 이기형 (Pediatric Neurology, 89), 제가 인턴할때 주치의로 24/7 불러 있었던 Dr. 신원석 (88) 선생님, 동아리를 같이하던 후배 Dr. 심인보(90) 선생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뿐만아니라 monthly GP meeting을 통해서 mentor가 되어주신 이선희 (81), 한창규 (81)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후배님들입니다.

When I contacted them directly, all of them were absolutely willing to help the GP and they did. Together, the GP members helped us in so many ways: some shared their friends' info, some helped outline the ideas for the 2015 GP forum, some drove long hours to join the monthly GP meetings, and some even initiated the local GP meetings in their region.

솔직히 말씀드리자, GP일 하면서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어떤 동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걱정이 안됩니다 제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예전에 의대를 다닐때 친구들, 선배, 후배들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과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Once again I was able to feel this incredible feeling of connectedness with our alums.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GP의 내년 과제는 모두 모여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일단 얼굴을 맞대고 모여야 서로에게 도움도 주고 의미있는 여러 일들을 추진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5에는 GP 동문들이 다 같이 즐겁게 만날수 있는 자리를 2015 annual convention (June 4-7, 2014, Glenpointe Marriott, Teaneck, NJ) 동안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 Green Project sessions at the June 2015 convention:

The followings are tentative GP activities planned during the convention. We have secured the time slots and the meeting rooms for these sessions but these activities will be shaped based on the crucial member feedback. We want to have a convention where every GP member will participate as a presenter, discussant or a panelist.

1. GP scientific presentation sessions (4 hours, 15-20 min presentations)
2. GP forum (4 hours, a combination of panel and open discussions on

two main topics to be held mostly on June 6, 2015)

- A. Career Development
    - I. Private Practice Building
    - II. Research Career Development
    - III. Medical Career in Industry
    - IV. Academic Career as a Clinical Educator
  - B. Women in Science & Medicine
3. GP gatherings

우리 GP 동문들은 왜 그동안 재미 동창회에 그토록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했을까요? Green Project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 질문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대답은 동창회에 참석해도 만나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포르말린에 젖어가며 함께 해부학 땀시치던 동기들, 그리고 연건동 어디선가 수도 없이 마주쳤을 법한 선배배들을 만나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토론하고 힘든 타향살이의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서울의대 재미동창회 그리고 우리 Green Project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재미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리는 2015 Annual convention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날 재미 동창회 참석후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셨던 경험이 있으신 동문여러분 그리고 아직 한번도 재미동창회에 참석해 본적이 없으셨던 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Thanks to the support of our President Dr. In-Suk Seo and the generos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NUCMAA of USA, we believe we should be able to provide travel awards to most trainees and to selected junior non-trainee members. Your feedback and participation will be absolutely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our convention and achieving the goal of reshaping our Association for the current and future young alumni and alumnae.

### Feedback needed:

It would be greatly helpful for us to plan the convention if you RSVP via GP Facebook (<https://www.facebook.com/groups/snucmaa/>) or email (mohpark@gmail.com) by the end of this month as following.

1. Will attend -> will participate in scientific session, GP forum (Career development and/or Women in Science & Medicine) or both
2. Unable to attend
3. Undetermined at this point

In addition, we are actively seeking your ideas / suggestions / comments / questions on any related topics on 2015 annual convention. Please post them on GP Facebook or send them to me by email. We do love to develop GP programs in 2015 annual convention with you all. Once again, it will be our exciting new start.

Thank you and I hope to see you all at the convention!

Sincerely,

Mooyeon Oh-Park, MD / Chair of Green Project / mohpark@gmail.com  
December 9, 2014

## Green Project fundraising

As part of the 2015 convention preparation, the GP committee begins fundraiser activity, all proceeds will be used for the GP projects. All are tax-deductible.

(1) **Annual membership drive:** we expect all participants of the convention to have paid the annual due. GP members, please send SNUCMAA of NA annual membership due \$125 (tax-deductible) for regular members and \$50 for trainees to SNUCMAA of N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rainees are residents, fellows, PhD students and postdoc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updating membership directory: Name in Korean, Chinese and English, home and work address, email (s), phone numbers (cellular, home & work) and fax. For those who wish to have the SNUCMAA of NA office envelope and forms mailed to your home, please email Mrs. Jamie Kim at SNUCMAA@yahoo.com

(2) **Directory advertisement:** see elsewhere in this issue of Sigetop for details. Please contact leesteinway@gmail.com for questions or comments regarding GP fundraising.

## The 2015 convention, a turning point

So during the last quarter of 2014 our committee saw progress in many areas, particularly expanding the GP membership base and planning of the scientific sessions for the 2015 convention. In the immediate months, our focus will be on (1) conceptualizing and organizing the GP forum and recruiting panel discussants, (2) creating the GP social events for the convention, and (3) GP fundraising.

We have all been individually contacting the GP members via email and phone (many hours of conversation) to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in 2015 Annual Convention next year. Slowly but steadily we are gaining your support. We truly want 2015 Annual Convention to be 'Connecting to the new generation and Redefining the SNUCMAA'.

With the support of the Association and the Board, the GP committee wants to try everything possible to make this meeting a turning poin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changing the young generation's perception of SNUCMAA* from 'being disconnected from the new generation with different interests' to '*refreshing, focused, substantive, futuristic, and entertaining to the young*'.

Please send us your ideas, both general and specific, and make this YOUR Green Project.

(Reported by Sunhee C Lee '81 and Mooyeon Oh-Park '89 for the SNUCMAA Green Project Committee)

### 농담 골목

**남편한테 mistress가 생기면**  
 불란서 여자: Mistress를 죽인다.  
 스페인 여자: 남편을 죽인다.  
 독일 여자: 둘 다 죽인다.  
 영국 여자: 모른척 하며 산다.  
 일본 여자: Mistress한테 가서 떨어지라고 빈다.  
 중국 여자: 자기도 같이 나가 바람 피운다.  
 한국 여자: 대통령 물러가라고 한다.  
 모든 것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 (48, Mrs. 한용현)

**물안개**  
 70대 남자가 20대 여자한테 교제하자고 하니가 20대 여자가 '물안개'하며 살짝 웃었다. (물: 물론, 안: 안되죠, 개: 개새끼야) - (48, Mrs 한용현)

**해방 후 교수들의 영어발음**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京城帝國大學은 京城大學으로 개칭되고 그때까지 독일어로 쓰여지던 의학 용어를 영어로 변경하는 노력이 교수들에게 필수로 되었다. 서투른 발음이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70년 전 일이니 많이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기억에 남아 있는 것만 모아 보기로 한다.  
 내과 조교수였던 金汝鎮 선생은 재빨리 美軍을 통하여 내과 교과서 Cecil 저 The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명칭 상세치 않음)을 번역 강의하면서 발음하기를 '세시루'에 따르면 하였기에 다음 해 미국 의사 한 사람을 알게 된 나는 그 친구를 통하여 그 책을 살려고 '세시루'를 몇 번 말해도 통화가 되지 않아 C, E, C, I, L로 읽어 주니, 그 친구 "Oh, 씨이슬"로 대답하여 통화가 된 일이 있었다.  
 당시 소아과 부교수였던 李國柱 선생이 시험문제로 "000명의 물리적 검사의 소견을 쓰라." 를 냈을 때 우리들은 어리둥절 하였는데 physical examination (신체 검사)의 physical을 물리적으로 번역하였음은 알아 차렸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 의과대학이 되자 옛 京城醫專 선배들도 교수로 임명되었는데 沈浩燮 선생(1913년 졸)은 'stomach'를 '스토막'으로 ch를 독일어 발음으로, 金東益 선생(1924년 졸)은 '스토막치'로 계속 발음하였는데 그것이 재미있었는지 누구 하나 시정해 드리지 않았다. 그 당시 영어 발음이 틀린 것이 무슨 수치가 아니기에 실명을 써도 실례가 아니라 믿으며 몇 예를 들어 보았다.  
 해방 직후에는 서울대학교에는 英國계 의학 교육을 받은 교수는 전무였으니 지금은 참말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다. - (49, 고영철)

**이슬람**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에게 "부인도 안녕하시오?" 라고 물었더니, "어느 부인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번)

**인내력**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이루어지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으로 이루어지며,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이루어집니다. (번)

**응급실 전경**  
 봄비는 응급실 구석에 눈두덩에 멍이 든 세 명의 남성 노인이 앉아서 병원에 오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모두들 마누라한테 얻어 터져서 왔으나, 60대는, 아침에 나들이 가는 마누라에게 "어디 가냐?" 고 물었다가, 70대는, 저녁때 배가 고파 "밥 좀 먹읍시다." 고 했다가, 80대는, 아침에 눈을 떴더니 "왜 눈을 떴냐" 고 두들겨 맞았다는 것이다. (59, 오형원)

**특이한 묘비명**  
 미국의 작가 헤밍웨이: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한국의 문선명 목사: 인생살이에서 확실한 건 오직 죽음과 세금 뿐이더라.  
 영국의 코미디언 스파이크 밀리건: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랬잖아!  
 한국의 중광 스님: 에이 괜히 왔다 간다.  
 미국 TV 심야 토크쇼의 황제 자니 카야스: 곧 돌아오겠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너드쇼: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한국의 어느 건달: 힘든 세상 힘들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다가 힘빠져 간다.  
 한국의 어느 노처녀: 미 개봉 사망.  
 한국의 개그우먼 김미화의 예언: 웃기고 자빠졌네. - (60, 이덕승)

**內子之德**  
 어떤 부부가 진주혼식을 성대히 했더니. 그런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글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그래서 남편이 말하길 "다 아내가 잘 해줘서..."  
 술이 한 순배씩 돌고 나니 남편이 건배를 제의했고 이 모임은 다 아내의 덕이니 "내자의 덕분" 즉 內子之德이라고 외치기로 하고 자기가 먼저 "내" 라고 하면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세 글자를 외치기로 했습니다.  
 "내~ 자지덕!" 이라고. - (64, 김금배)

**나의 신세 타령**  
 Johnny Cash가 세상을 떠나니까 나에게서 Cash가 없어졌는데 조금 후 Bob Hope도 저 세상에 갔으니 희망마저 날아가 버렸다. 어려울때 또 Steve Job 마저 없으니 마지막 남은 Job까지 없어져진 내 신세여. - (65, 김길중)

**치과 의사**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가서 이 하나를 빼는데 치료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8만원이라고 대답하자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뽑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비싸죠?"  
 그러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환자분이 원하시면 아주 천천히 뽑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71, 이원택)

**행복의 조건**  
 와이프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1) 안아준다 (2) 뽀뽀한다 (3) 명품 백을 사

## 靑山

조은순 (61, 북가주)

이 글은 10여년 전 제가 뉴욕에 살던 시절에 쓴 것입니다.  
 옛날 30여년 전에 응급실 간호사인 60대 Mrs. Dembowski 남편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몇년 후에 암이 간에 재발했으나 건강 상태가 좋아 계속 3년 이상 병원 옆 골프장에서 소일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을 잃고 언니가 사는 후로리다로 이사 가고 한장 편지를 보내왔는데, 남편을 화장해서 그 재를 양지바른 병원 옆 7th green에 뿌렸다 했습니다. 아미, 이것을 Johann Ludwig Uhland는 좋아 했겠지요.

O legt mich nicht ins dunkle Grab, Nicht unter die grune Erde hinab! Soll ich begraben sein, Lieg ich ins tiefe Gras hinein. In Gras und Blumen liegt ich gern, Wenn eine Flote tont von fern Und wenn hoch obenhin Die hellen Frhlingswolken ziehn.	아, 나를 어두운 무덤에 묻지마시오, 저 푸른 땅 밑에는 아니 되오! 내가 꼭 묻혀야 한다면, 나를 깊은 풀 속에 눕혀 주오. 풀과 꽃 속에는 즐겨 누우리다, 멀리서 피리 소리 들려오고 저 높은 하늘에는 빛나는 봄구름이 흘러갈테니.
---	--

제가 10여년 다니는 골프장은 이곳 Green Hills Country Club인데, 가끔 날씨도 좋고 기분이 나면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라고 콧노래가 나오다가는 문득 그 옛날 고향 생각이 나곤 합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던데, 만일 나라가 통일되어 돌아간다면 알아볼 수 있으려는지... 그러다가는



男兒立志出鄉關 學若不成死不還 埋骨豈期先墓地 人間到處有靑山	사내가 뜻을 세우고 고향을 떠났으니 만약 배움에 성공치 못하면 죽어도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찌 내 뼈가 조상들 묘지에 묻혀질 기약을 하리오 이 세상 가는 곳마다 청산이 있지 않은가
--	--

라는 구절을 다시 새겨보지요. 언제나 저 靑山이 저렇게 가까이 있으니 이제 근심이랑 앓으렵니다.

준다 (4) 요리한다 (5) 청소한다 (6) 처가에 잘한다 (7) 같이 쇼핑한다 (8) 함께 여행을 간다 (9) 사랑을 속삭인다 (10) 연락을 자주한다 (11)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12) 어깨를 주물러 준다 (13) 빨래를 한다 (14)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15) 일찍 귀가한다... 기타 500여 가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1) 먹인다 (2) 재운다 (3) 가만히 둔다. -이상- (이렇게 단순한 남편을 행복하게 못 만드는 여자는 정말 나쁘다. ㅋㅋ) (71 이원택)

**아내가 새 옷을 사오니.**  
 남편 "그걸 굶다고 골랐어? 당신은 도대체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없단 말이야. 나를 좀 닦아 봐."  
 아내 "맞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골랐고, 나는 당신을 골랐잖아요." (박원-)

**심사평: 장원- 내자지덕(64, 김금배), 가작-영어발음(49, 고영철)**  
 응모작 10편중 '靑山'은 농담이라기보다 심오한 철학 詩라 따로 실기로 했고 '내자지덕'은 공감하는 동문들이 많아 단연코 장원으로, '영어발음'은 표절의 여지가 없어 가작으로 추천합니다. 상금 장원 100불과 가작 50불은 동창회의 check로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 지/상/통/화/ 이철남(50, 애틀랜타)

지난 연말에 '농담골목 원고모집' e-mail에 대한 이철남(50) 동문의 댓글.  
 "저에게 농담 유묘아 관한 책 4권(한글 2권, 영문 2권)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농담 재료가 풍부할 것 같습니다. 모두 30-50년 전에 출판한 것, 나에게 는 필요가 없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선생이 원하시면 그 분의 email을 보내주시지요."  
 "오늘 책을 US Post Office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함께 내가 은퇴 후 소일하기 위하여 쓴 소설 <분홍 코끼리>를 상자 빈틈이 있어 동봉하였습니다. 경험이 없는 무능한 인간의 과거사 같은 작품. 하하하....."  
 "Weather report를 보니 북쪽은 눈, 추위, 바람으로 대단하군요. Erie PA에서 30년이나 살아 어떤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 애틀랜타 지역은 오늘 해가 반짝이고 추운지(F 52) 모를 아름다운 날 이었습니다. 책은 필요 없으면 누구에게 주거나 휴지통에 던져 넣으면 문제 해결. 조금도 아쉬울 것 없습니다. 사실은 시계탑에서 농담골목을 매우 enjoy 했습니다.  
 "농담골목 심사위원회는 originality, individuality, quality 같은 것을 고료할 것입니다. 좋은 농담은 good old wine과 같이 아무데서나 몇 번이고 써도 그 value를 잃지 않습니다. Google-rate Jokes에 들어가시면 별 농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lost in translation 현상에 빠지지 않고 원고모집이 부족할 때 쓰시면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도 해는 반짝하지만 몸시 춥습니다. 이런 추위는 처음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그저 따뜻한 방에서 easy to read book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의 엉터리 철자법을 용서하십시오)

편집자 주: 이 동문은 함흥출신으로 50년 서울의대 전문부를 졸업하고 위생 병원에서 Intern을 하던 중 6.25동란이 일어나서 군의관으로 6년간 복무하다 소령때 하와이의 Triple Army Hospital에 6개월간 연수한 것을 계기로 57년 도미하여 비노기과를 전공하고 Erie에서 30년, Atlanta에서 10여년 의료업에 종사하다가 68세에 은퇴하여 안과의사인 큰딸을 비롯해서 5명의 자녀(그중 4명이 의사)와 많은 손 자녀를 곁에 두고 노후를 즐기고 있음.

의대 66년동기들이 2015년 신년맞이는 특별한 곳에서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물이 잔잔하고 맑은 초록색의 lagoon(礁湖) 위에 야자수 앞으로 지붕을 한 수상호텔, 흑진주, 영화 South Pacific에 나오는 신비의 섬 Bali Hai, Tahiti, Bora Bora 등 이름만 들어도 환상적인 곳 South Pacific French Polynesia Cruise를 하기로 결정하고 김용재 윤낙승 동기들의 오랜 준비 끝에 김충규, 노재선 정양수, 김의신, 민발식, 우리부부까지 여덟 동기 부부가 참가하게 되었다.

2 for 1 Cruise Fare plus free Airfare 등 평판이 좋은 Oceania Cruise도 고려해 보았으나 우리가 원하는 연발에 Nuku Hiva를 가는 것은 Princess Cruise 밖에 없어 이 배로 결정했다. LA에서 Tahiti의 Papeete까지 가는 항공편은 개인적으로 예약하면 일인당 \$1,500 이상 되었으나 Princess Cruise에서 \$877에 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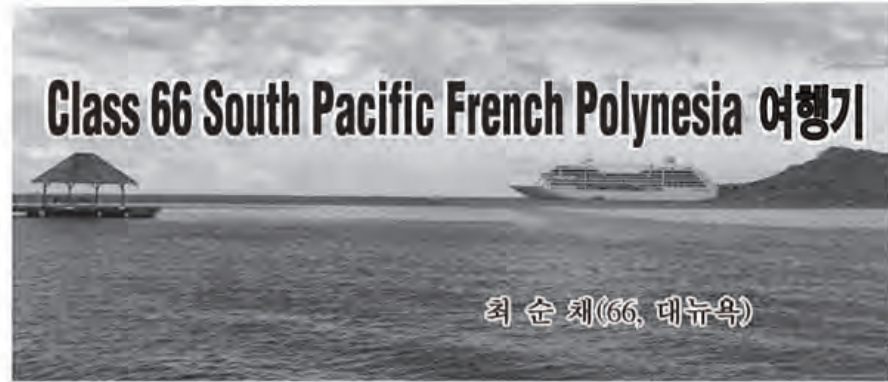
**12월 28일 (일) LA-Papeete**

LA 국제터미널에서 동기 여덟부부 16명이 모여 Air Tahiti Nui 항공편으로 출발 8시간 반만에 Tahiti Papeete 공항에 밤 10시반 도착(한국 서울 가는 길보다 멀었다) 택시로 부두로 가서 Pacific Princess에 승선하고 첫밤을 보냈다. 방은 우리 그룹 전부 ocean view로 upgrade 되어있었다. Pacific Princess는 3만톤급에 손님 6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배였으나 음식도 좋았고 쇼도 수준급 이상이었다. French Polynesia는 바다가 비교적 맑은곳을 향해하기 때문에 너무 큰 배를 쓸 수 없다고 한다.

French Polynesia는 118개의 섬이 Society Islands(Tahiti, Bora Bora, Moorea, Raiatea-Tahaa, Huahine 포함), Tuamotu Archipelago(Rangiroa), Marquesas Islands(Nuku Hiva), Gambier Islands, Austral Islands 등 5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많은 섬들이 Captain Cook, Mutiny on the Bounty, Moby Dick을 쓴 Herman Melville, Treasure Island와 Dr. Jekyll and Mr. Hyde의 저자 Robert L. Stevenson, 불란서 후기 인상파 화가 Paul Gauguin 등 역사적인 인물들과 관련된 것이 많고 James Michener가 이 차대전중 South Pacific의 한 섬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Tale of South Pacific'을 썼지만 1958년에 만든 영화 South Pacific의 촬영은 하와이의 섬 Kauai의 해변에서 했고 영화중 Bloody Mary가 Bali Hai를 부르는 장면의 배경은 지중해에 있는 스페인의 작은 섬 Es Vedra의 산 모양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라고 한다. 1962년 영화 Mutiny on the Bounty를 주연 감독했던 Marlon Brando가 같이 주연했던 Tahiti 여배우와 결혼 그 후손들이 Papeete 해변가 고급 주택지에 지금도 살고 있고 이곳에서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옛날 왕족들이 쓰던 경치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Tetiaroa라는 Atoll Island를 99년간 lease해서 The Brando라는 초호화 고급호텔을 최근 개업했는데 solar panel, coconut oil generator, 깊은 바닷물을 끌어 올려서 사용하는 냉방장치 등 'most eco-friendly hotel' 이라고 한다. 자가용 비행기(\$570)로 들어 가야되고 하룻밤 숙박비가 식사 포함 \$4000 이다.

**12월 29일(월) Moorea**

Moorea (Golden Lizard)는 높은 산과 백사장 옥색의 lagoon이 많아 경치 좋은 곳이 많고 7-10월 사이에는 hump-back whale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행과는 시기가 달라서 볼 기회는 없었다. 우리 그룹은 섬 일주 구경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곳 Cook Bay(실제 Captain Cook은 이곳에 배를 정박한 일은 없다고 함.) 해변가에 UC Berkeley가 운영하는 Richard Gump South Pacific Research Station이 있다. Mr. Gump



는 Stanford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고급실내장식품 가구 보석 등 가족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고, 이곳에 가지고 있던 35 acre estate를 자기 모교에 기증하려고 Stanford 대학의 Board of Directors를 초청해서 큰 luau 잔치를 베풀었는데 Board member들이 먼 곳 이곳 섬에 있는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면서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다른데 쓰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Mr. Gump가 술에 취한줄만 알고 한 얘기인데 이 말을 들은 Mr. Gump는 화가 나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UC Berkeley에 기증해 버렸다고 한다. 지금 이곳에선 해양생물학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이고 장소가 장소인 만큼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한다.

**12월 30일(화)-31일(수)**

**Moorea-Nuku Hiva**

Moorea에서 동북쪽으로 773마일 떨어진 Marquesas Islands중 가장 큰섬 Nuku Hiva로 이를 동안 향해.

우리 그룹은 준비해가지고 간 김정은 암살영화 'Interview'를 보고 웃놀이 등으로 시간을 보냈고 저녁식사 후에는 우리끼리 샴페인으로 새해를 축하하고 몇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South Pacific 신년 해맞이를 했다.

**1월 1일(목) Nuku Hiva Taiohae Bay**

Nuku Hiva는 다른 섬들보다 늦게 생긴 섬으로 산은 높고(4000피트 이상) 계곡은 깊지만 lagoon이나 beach는 없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옛날 이곳 Marquesas 원주민들이 Hawaii Island, Easter Island로 이주해서 정착했다고 한다.

1813년 미해군 Captain David Porter가 배를 수리하러 이곳에 잠시 정착하면서 그 당시 대통령 Madison 이름을 딴 Madisonville, Fort Madison을 세우고 미국 영토로 선언을 했으나 미국회는 미해군들이 미개한 원주민들과 놀아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승인을 거부했고 1842년 불란서가 합병해 버렸다고 한다.

Herman Melville은 포경선을 타고 이곳에 들렀다가 이 섬에 반해 한 달쯤 머물고 간 뒤 첫 인기소설 'Typee' (1846)를 발표 했고 지금 이곳 Taiohae에 주민들이 큰 나무를 조각해서 세운 Herman Melville Memorial이 있는데 가이드한테 특별 부탁을 하면 가볼수 있다. 우리 그룹은 4WD 2대를 빌려 좁은 산길로 큰 산을 두 번 넘고 깊은 계곡을 지나 Taipivai Bay와 북쪽 끝 경치좋은 Hatiheu Bay를 구경했는데 Mrs. 김충규(노영자씨)는 길이 험해서 엉덩이가 많이 손상되었다고 불평이 많았다. 오는길에 숲속에 있는 고대 open stone temple(marae라고함)를 구경하고 야생 papaya도 따먹어 봤지만 모기에 많이 물렸다(이곳 여행에 모기약은 꼭 필요). Paul Gauguin은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조그만 섬 Hiva Oa에서 살다가 세상을 떴고 그곳에 묘가 있다고 한다.

**1월 2일(금) At Sea**

다시 서남쪽으로 향해.

**1월 3일(토) Rangier Atoll**

Tuamotu Archipelago중 가장 큰atoll(環礁)인 Rangiroa에 도착. Atoll은 큰 분화구가 있는 화산섬이 수백만 년 동안 조금씩 바다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분화구 가장자리에 산호와 석회를

생성하는 algae 등의 침전물이 싸여서 반지처럼 동그랗고 평평한 모래섬들이 생기고 가운데는 coastal lagoon보다는 깊은 atoll lagoon이 생기는 아름다운 섬인데 이곳 Rangiroa는 South Pacific 에서 가장 큰 atoll로 Tahiti 섬 전체가 들어 갈수 있다고 한다. 이곳 lagoon에서는 snorkeling, scuba diving을 하는것이 이상적이겠지만 glass bottom boat에서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Aqua scope이라는 Semi-Sub을 타고 수면 아래로 bubble처럼 생긴 곳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물고기 구경을 더 잘 할 수 있다.

Polynesia 여러 섬들마다 흑진주를 배양하는 pearl farm이 많이 있지만 이곳에서 무료 shuttle을 타고 가서 진주를 어떻게 배양하는지 구경할 수 있다. 자연진주는 귀하고 값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는 진주는 대부분 배양진주이고 흑진주는 남태평양에서만 생산된다. 2년쯤된 진주조개를 조금 열고 gonad를 칼로 조금 절개한 다음 미국 Mississippi나 Tennessee 강에서 나오는 민물홍합조개껍질을 가공해서 만든 6mm bead와 가장 색깔이 찬란한 조개껍질을(mother of pearl)만들어 내는 진주조개의 lip(mantle)을 조그만 조각으로 잘라서(graft라고 하며 보기 쉽도록 붉은 물감을 들인다)같이 넣어주면 mantle 조직이 자라면서 pearl sac (pocket)이 되고 nacre와 conchiolin을 분비하면 bead가 조금씩 커지면서 진주가 된다. 몸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분비물로 싸버려서 해가 되지 않게 하는 자연방어기능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18-24개월 배양한 후 진주를 꺼내고 품질좋은 진주를 생산한 조개는 10mm 짜리 bead를 다시넣어 2-3번 더 쓸 수 있다고 한다. 쓰고 남은 진주조개는 중국으로 수출, 의복 장식이나 자개용으로 가공된다고 한다.

진주배양법은 고대에서 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현재 쓰고있는 기술은 영국인 생물학자 William Saville-Kent가 후주의 Thursday Island에서 일하면서 처음 연구 개발했는데 엉뚱하게도 일본인 Mise와 Nishikawa가 1907년 처음 특허를 내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Mise는 목수였고 Nishikawa는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진주배배에 대한 경험이나 연구를 해본적도 없고 그당시 Thursday Island에는 2000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진주와 수산업 관계일로 일하고 있었다니 그 배경은 짐작 할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진주회사를 세운 Mikimoto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이물질이 조개껍질에 붙어 흑같이 생기는 Blister Pearl 재배에 성공하고 특허까지 냈으나 free round pearl 재배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Nishikawa를 자기 둘째딸과 결혼시켜 사위를 삼아서 세계적인 진주회사가 되었다고 한다.

민물조개를 이용해 bead를 쓰지 않고 mantle graft만 이용해 조개 하나에서 여러 개의 진주배양을 할 수 있는 fresh water pearl은 거의 100%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자연진주와 배양진주는 X-ray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1월 4일(일) Radate도착**

옛날 Polynesia 왕국의 모임장소로 Marae Taputapuataea라는 커다란 open stone temple에서 먼 곳에서 canoe를 타고 와서 부족회의를 하고 산사람을

제물로 희생시키기도 해서 1969년 수천 개의 두개골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한다. 섬 일주 여행을 했지만 별 특징은 없었다. 자연적인 조류의 흐름을 따라 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Tahaa Coral Garden Drift Snorkeling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해볼 기회는 없었다.

**1월 5일(월) Bora Bora**

Polynesia 섬들중 가장 아름다운 lagoon으로 둘러 쌓여있고 고급수상호텔이 많고 관광포스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섬이다. 분화구가 침몰해서 생긴 atoll lagoon과는 달리 몇 백 만년의 침식작용으로 섬주위의 바다가 얕아지고 barrier reef(堡礁)로 둘러 싸여있어 바다가 잔잔하고 옥색갈의 투명한 물속에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는 coastal lagoon이 유명한 곳이다.

섬 주위와 lagoon 사이의 바다가 넓어 많은 배를 정박할 수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방위하기 좋은 곳이어서 이차대전중 미군이 이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했고 큰대포 등 유물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실제 이곳에서 전투는 없었고 전쟁후 'blue eyed baby'들만 많이 생겼다고 한다.

뒷좌석을 군대 트럭처럼 만든 'Le Truck'을 타고 섬순회 구경을 하면서 가장 큰 백사장이 있는 Matira Beach (매년 11월에 3일간 Huahine에서 Bora Bora까지 80마일코스를 항해하는 유명한 6인조 canoe race Hawaii Nui VA'A의 종착지점)와 유명 celebrity이 꼭 들려간다는 Bloody Mary Restaurant(바닥은 모래이고 thatch 지붕 밑에 동그런 bar table이 있다)를 구경했는데 최근에 Bubba Watson이 왔었다고 이름이 목판에 새겨져 있다.

Bora Bora에서는 유명한 lagoon구경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Aqua Safari Helmet Dive가 이번 여행의 가장 이색적인 highlight였다. Barrier reef까지 배를 타고 나가서 압축공기가 호스로 들어오는 helmet을 쓰고 해서 2만리에 나오는 Captain Nemo처럼 바닷속을 30분간 걸어 다니면서 산호초, 아름다운 물고기 큰 가오리(sting ray) 등을 구경하면서 손으로 먹이를 주기도 하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scuba diving의 즐거움을 경험 할수있는것이였다. Guide가 under water camera로 사진 몇장 찍은 것을 입력해 놓는 thumb drive를 \$70에 파는데 우리는 하나만 사서 복사해서 나누어 갖기로 했다.



나는 마침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Gopro camera가 있어 under water video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물고기 가오리 등이 헤엄치는 모습이 사진보다 몇 배 박동감이 있었고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가는 기회가 있으면 under water video camera 꼭 가지고 가도록.)

이곳 Bora Bora의 수상호텔에서 하룻밤 자보는 것도 일생에 한번 있는 경험인데 해볼까 했으나 호텔 값이 하루에 최소 \$850 비행기 편을 다시 바꾸어야 하니 \$2000이 더 들 것 같아 포기했다.

**1월 6일(화) Huahine**

Polynesia 섬들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Marae를 구경하고 'Garden Island'라는 별명처럼 많은 열대식물과 꽃등을 구경할 수 있었다. 이 섬에서는 우리 다리 굽기에 길이가 1m가 넘는 'blue eyed eel'이 먹이를 주면 물 밖으로 나와 먹는 것을 (다음면에 계속)

# 머리 염색

이 덕 승(60, 샌디에고)



'머리염색'을 영어로는 hair dyeing 혹은 hair color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머리(head)가 아닌 머리카락(hair)에 색상을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머리염색에 해당되는 순수 우리말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머리카락 물들이기'가 제격인 듯싶다. 머리카락 물들이기란 말의 어휘가 좀 딱딱하고 너무 길다고 여겨진다면 두발 염색이라든가 아니면 모발 염색 등으로 표현해야 옳은 것 같은데 이치에도 맞지 않는 머리염색이란 말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상용되고 있음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우리가 모순된 말인 줄도 모르면서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색상을 입히는 작업을 끝내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머리 전체가 염색되어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니 머리염색이란 표현이 그 타당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머리염색에 대한 기원을 살펴보면 4,600여 년 전 이집트 고대 3 왕조 때 Teta 왕의 어머니인 SES 여왕이 자연 추출물인 henna로 자신의 모발을 염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추궁과 집착으로 염색 원료의 개발과 기술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어 오늘날에는 누구나 손쉽게 자신에게 잘 맞는 색상으로 머리염색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

머리염색의 장점이란 주로 나이를 늦추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뻣뻣해진다든가 염색 원료에 들어 있는 화학성 물질로 인해 두피 표면이 몹시 손상되는 단점도 있다.

내 나이 50 고개를 넘어서자 검은 머리 사이사이로 솟아나는 흰 새치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인생의 내리막 길목에 들어섰구나...' 좀 씁쓸하고 서글픈 감정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다.

1900년 초 18년간 Anesthesia Group Practice를 하던 St. Louis를 떠나 Mojave High Dessert에 자리 잡고 있는 Apple Valley로 이주하여 200 beds 정도 되는 병원에서 마취 개업(fee-for-service)을 하게 되었다. 몇 주 전만 해도 회곳회곳한 새치들이 산발적으로 돌아났던 내 머리가 어느덧 반 백발로 변해버린 나 자신을 보면서 세월의 빠름을 재삼 느끼게 되었다.

새로 일하게 된 병원을 드나들면서 특히 수술실 내에서 일할 때 종이 cap을 머리에 얹어놓은 내 모습에서 나이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양측 귀 앞뒤로 뻗어 나온 백발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때 내 머릿속을 스쳐 가는 번개 같은 idea가 떠올랐으니 바로 머리염색이었다. '그래, 반백이 된 내 머리를 검게 물들이자. 그러면 내 모습을 남들에게 젊게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나이를 뒤로 한 기분이 들 터이니 일하는데 큰 활력이 될 것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고 그 날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natural black으로 표시된 머리염색약을 구입했다. 나의 회춘 시도 작전에 아내 역시 대환영이었다. 아내의 도움으로 머리염색을 마치고 나서 거울 앞에 서 보니 '와아! 이 인간이 정말 나란 말인가?' 나를 본 아내 역시 '어머! 당신, 10년은 더 젊어 보이네요!' 하면서 첫 머리염색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다음 날부터 나의 출근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수술실이나 회복실 간호사들로부터 환갑이 다 된 내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진담 반 농담 섞인 말투로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젊음에 대한 애착이 두드러지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지난날들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다.

머리염색에 도취해서 마냥 흥청거리던 나에게 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급습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머리염색을 한 지 7~8시간이 지나자 머리가 슬슬 가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극에 달해 주먹으로 머리를 두들기거나 손톱을 세워 머리를 긁어대지 않고서는 잠시도 견딜 수가 없었다. 가려움증에 즉효라는 로션을 뿌려보아도 소용이 없었고 얼음물 속에 머리를 담고 있으면 그때뿐, 냉기가 가시자마자 가려움증은 계속되었다. 친구 부인의 권유로 baking soda를 탄 물에 머리를 감고 나니 효력이 좀 있는 것 같았으나 역시 일시적이었다. 단잠을 설치가며 이곳저곳 타치는 대로 머리를 긁어댔더니 두피가 벗겨지면서 그 부위가 쓰라리고 아프기까지 했다. 머리염색을 한 지 5~6일 정도 지나서야 가려움증이 고개를 숙이고 보니, 만 가지 약이 무효요 오직 시간이 해결해 주는 수 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미제나 한국 제품에 비해 일본 제품이 좀 유연해 보이기는 했으나 나의 머리 표피가 유별나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머리염색을 중단하였다.

머리염색을 다시 하게 된 첫 동기는 어머니의 간청 아닌 어명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팔순 축하연을 며칠 앞두고 뉴욕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막내 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돌연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덕승아! 너의 삼 형제가 늙은 에미를 위해 수고가 많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이번에 뉴욕에

올 때 머리염색을 꼭 하고 와야 한다. 팔십이 다 된 네 에미가 까맣게 머리염색을 했는데 잠깐인 네 머리가 희어서야 하겠니? 내 말 명심해라!

어머님께 효도하는 아들들로 보이기 위해 우리 삼 형제는 모두 검은 머리가 되었다. 그 후에도 어머니에 대한 나의 효도는 계속되었는데 다행히도 나의 머리와 궁합이 잘 맞는 염색제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2000년도 초 의료직에서 은퇴한 후 San Diego에 정착하면서 머리염색과의 인연을 끊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니 일터에 나갈 일도 없어졌고 그렇다고 공식 석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드물어진 데다가 돈도 벌지 못하는 주제에 매 6주마다 10불정도 하는 염색약을 구입하는 것조차 성가시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머리염색이여, 안녕! 을 하지 못하게 된 두 번째 동기는 바로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었다.

'여보! 당신 머리염색 계속 해요. 머리염색을 안 했을 때 당신 얼굴은 우중충해 보이고 나이도 더 들어 보이니 봐 줄 수가 없네요. 내가 왜 나이 많은 영감하고 한 집에서 살고 있는지 서글픈 생각이 든다니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잔소리라기보다는 남편의 기를 살려주기 위한 조언이요, 플라스 아내 자신의 만족감을 얻기 위한 방패술이었다고나 할까? 어머니를 위해서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머리염색을 하였는데 반평생을 나와 동고동락 하면서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다면 두피가 손상된 것쯤이야... '상처뿐인 영광이지!'

칠순이 되던 날, 지나온 나의 삶 속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 두었던 글들을 한데 묶어 출판 기념회를 가졌었는데 그때의 내 머리는 오랫동안 사용했던 natural black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절한 dark brown 이었다. 기념회를 마치고 나자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와서 속삭여 준 아내의 말이 아직도 내 귓가에 서 맴돌고 있다. '당신, 오늘 참 보기 좋았어요. 내가 보기엔 50대의 장년답게 우아한 모습이 아주 멋졌어요. 칠순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내 나이 80이 되었다. 80이 되던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쳐진 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난 80년 동안의 긴 세월을 밀려오는 풍파에 시달리면서 달려온 나 자신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마에 굵게 패인 주름과 눈가의 잔주름들 그리고 늘어진 눈꺼풀에 탄력을 잃은 목 주변의 근육들이 머리 위에 씌워진 후갈색의 모자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 더러 위아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 가장 순수한 평화



서윤석(68, 버지니아)

사랑방 마루에 앉아  
통통 떨어지는 빗방울을 내려다 보듯  
한겨울 눈이 펄펄 내리는 들판을 내다 보듯  
젖지 않은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서  
먼 추억 속에 잠겨 보는  
가장 순수한 평화로운 하루

새해 기쁜 소식이라고  
빼꾸기가 시간마다 운다  
빨리 만나라 한다

핏줄이 당기는  
오늘 태어난 아기  
영상으로 도착한 오희한 코  
누구를 닮은 것일까  
미토콘드리아가 불붙인  
가장 순수한 평화로운 고운 얼굴

차마 눈 뜨고 봐 줄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였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머리염색과의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80 생일을 맞아 지난 25년 동안 나라는 인간을 보기 좋게 감싸주고 못한 허물들을 coating해 주었던 머리염색이 내 곁을 영원히 떠나고 말았다.

한국의 여 가수인 신신애 씨가 부른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들어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그렇다 이 세상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한데 어울려서 살고 있다. 고공에 올라가 지구상을 내려다보면 백층건물이나 초가집이나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하다. 타인과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 후회 없는 인생행로가 아닌가 싶다.

지난 Thanksgiving 저녁 식탁에서 현재 대학 졸업반인 맏손녀 딸이 나를 허그하면서 한 의미 있는 말 한마디. '할아버지! You look great! I like your original hair color. I am very proud of you!' 곧이어 옆에 앉아 있던 아내가 한마디 덧붙인다. '그러구 보니 당신 정말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 나는 머리염색과 결별하면서 자연인이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식이 전혀 없는 자연인이 되어서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남에게 분이 되는 품위 있는 삶을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온 가족과 함께 Thanksgiving dinner를 들면서 내 마음속은 여지껏 느껴보지 못했던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 시계탑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일시: 2014년 11월 22일 오후 4시30분 장소: 뉴저지 포트리, 더블 트리 호텔  
참석자: 노용면, 이희경, 허선행, 서윤석, 이원택, 이선희

이원택 편집장의 동부방문으로 모처럼 오붓한 편집회의를 기대했으나 시기에 쫓기다보니 이사회회의 일부로 전락되어 토론은 생략한채 보고로 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편집위원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email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모든 일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편집위원중 단 한 사람만 반대해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고 있고 세태에 따라 multi-media, multi-test 쪽으로 나가야 겠으나 어디까지나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변죽만 울린 '책임편집제' 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편집위원 1명과 자문위원 1명이 조가 돼서 번갈아 가면서 신문 한판씩 책임지고 취재, 원고모집, 편집, 교정, 배포를 통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16면을 기능별로 나눠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출판위원 1인당 1-2페이지를 전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처럼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처지에 과부한 바램이겠지요. 다음번 편집회의 때 모든 편집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전면에서 계속> 구경했고 우리가 개천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쓰던 고기어항과 같은 원리를 이용해 강물 안에 돌맹이를 쌓아놓고 현재도 쓰고 있는 stone fish trap을 구경 할 수 있었다.

#### 1월 8일(화) 마지막 날

##### Tahiti Papeete

아침 8시까지 방을 비워주고 밤 11시59분 LA가는 비행기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6시간 반짜리 Island Drive & Museum of Tahiti를 하기로 했다. Captain Cook이 항해할 때 landmark로 이용했다는 One Tree Hill, 전망대, 1769년 금성이 태양을 가로 지르는 것을 관측했다는 Point Venus, 바닷물을 분수처럼 뿜어내는 Blow hole, 해변가 식당에서 Polynesia 전통음식과

이곳에서 생산되는 Hinano beer로 점심을 먹고 French Polynesia에서 가장 잘 정돈되었다는 Museum of Tahiti를 관람하고 배로 돌아왔다. Princess Cruise에 공항 가는 것을 예약(\$39)하면 배안에서 사위하고 점심, 저녁먹고 밤 9시에 공항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동기 노재선군이 이번 여행 중 몸이 불편해서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LA 가는 비행기가 하루 하나밖에 없어 check in하는데 냉방장치도 없는 더운 공항에서 한 시간 이상 서있어야 하는 것이 고역이었지만 그런대로 재미있었던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의 골프 이야기 (1)

윤영옥(63, 후로리다)

Golf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위 "Fantastic Foursome"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는 친구로서 골프를 좋아 할뿐 아니라 다른 환경들도 모두 조화가 되는 4인조(人組)의 golfers를 의미합니다. 매우 다행하게도 63 classmates, 고영희, 송용덕, 이종두, 우리 그리고 반택용과 김주응은 그러한 Fantastic Foursome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금상첨화로 우리의 부인들도 또한 그들의 Fantastic Foursome이 되어서 골프를 함께 즐기면서 우리는 "This is once in a life time opportunity"란 기치를 들고 국내외 유명한 골프코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코스들을 찾아다니는 행복한 시간들을 같이 가졌습니다. "나"가 아니고 "우리"란 제목을 쓰는 이유가 이 뜻에 있습니다.

### 처음 시작

1975년경 West Virginia의 Princeton에 사는 고영희로부터 Golf를 배우게 됩니다. 그 때에는 다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Golf Resorts에는 가지 못하고 West Virginia의 고영희가족, Potomac, Maryland에 있는 이종두가족, Long Island, New York에 사는 반택용가족 그리고 Richmond Virginia에 있는 우리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집에 초대하여 주말에 골프를 치면서 우리의 골프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딸이 둘에 막내로 아들, 고영희네는 딸 셋, 이종두네는 딸만 둘, 그리고 반택용네는 아들만 셋. 이 아이들 11명이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또 아주 사이가 좋아서 잘 지냈고, 때로는 자기네들이 만든 연극도 보여주고 다른 performances로도 우리를 즐겁게 하여 주었습니다. 두달에 한번쯤 만났는데, 우리가 만나기로 한 주말이 가까와 지면 같이 모여 갖게 될 즐거운 시간들을 생각하며 "birthday를 기다리는" 소년들 마냥 행복해 지곤 하였습니다. 이종두군은 우리가 만나기로한 며칠전에 타고 가던 자동차가 박살이 나는 큰 교통사고가 나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는 제일 먼저 골프스윙을 해 보고는 "오는 주말 골프치기는 문제 없어!" 했답니다.

우리는 낮에는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부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만찬의 식탁에 둘러 앉아서 행복한 이야기들로 웃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후에는 술잔을 나누면서 포커판을 벌리는 등 시종일관 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 사는 고영희가족이 롱아일랜드에 사는 반택용군의 집까지는 약 634마일을 (10시간 소요) 운전해 와야 했습니다. 반대로 멀리서 오는 반택용은 허리가 아파서 내일 골프 못 치겠다고 엄살을 부리곤 했는데 정작 돈내기 하면 그 친구가 이기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만날 때는 보통 맨 하탄에서 만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Shinbasi라는 일본집에서 저녁을 잘 대접받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보거나, 오페라 시즌이 아니면 브로드웨이 쇼(Cats, Starlight Express와 Miss Saigon)를 보고 난 후에 또 한 시간을 운전하여 반택용군네로 갔습니다. 이렇게 '강행군'을 했는데 그 중에도 제일 심했던 것은 금요일에 맨하탄에 도착하여 저녁을 잘 먹고, 오페라를 보고, 새벽 한시경에 반택용이네 도착하니 마침 겨울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일기예보도 다음날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내일 골프치기는 틀렸으려니 생각하고는

포커판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술도 마시며 웃고 떠들고 한참을 하다보니 어느새 東窓이 밝아졌고 비가 그쳤길래 우리는 후다닥 아침을 먹고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골프를 치고 들어와서는 단 한시간 눈을 붙이고 서울의대 Annual Ball을 참석하려고 맨하탄으로 갔으며, Annual Ball 후에 우리는 참석한 다른 동기들과 함께 선우건영의 집으로 2차를 갔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밤 한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음날 일요일에 아침 일찍 골프를 치고 모두 귀가를 했습니다. 물론 고영희네는 10시간, 우리는 8시간을 운전해 왔지요.

그 때 우리는 한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바쁠 때 인생을 즐길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잠을 자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고영희군이 살던 Princeton, W. Va. 근처에 있는 Pipestem State Park에 여러번 갔었는데 거기는 골프코스가 산 꼭대기에 위치하여 아침 일찍 tee-off를 하면 골프공이 구름 밑으로 내려 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신선놀이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번은,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golf cart도 내어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36홀을 걸어서 친 기록이 있습니다. 한참 젊었을 때 였지요! 또한 근처의 Bryce Mountain Resort에 가서는 클럽하우스가 열리기 전에 9홀을 미리 치고 그 후에 36홀을 치곤 하였습니다.

### Myrtle Beach 골프

이렇게 2-3년을 지나니 경제적 여유도 조금 더 생기고 해서, 1979년에 반택용, 고영희, 이종두, 최재홍과 우리 가족이 S. 캘로라이나에 있는 Myrtle Beach로 골프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들만 아침에 골프를 치고 오후에는 남자 한 사람은 baby sitting을 하고 여자와 남자 셋은 테니스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그 때 우리집 큰 딸 수연이가 12살로 제일 위였고 택용이네 막내 Michael (4살?)이 제일 어렸습니다.

하루는 내가 아이들과 같이 beach에 있었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Are they all your children?"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joke로 "Yes, they are!" 했더니 매우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Myrtle Beach에서의 첫 해를 지나고 떠나면서 우리 남자들이 합의 하기를 내년에는 여자들에게도 골프를 치게 하자고 결정 했습니다. 그 다음 여름에 우리는 다시 머블 비치에 모이면서 우리는 아침에 골프를 치고 오후에는 여자들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기로 하고 남자들만 미리 예약을 해 놓은 골프코스(Pro-shop)에서 우리가 필요한 수속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어느 젊은 여자들이 한국말로 '왓지질'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돌아 보았더니 놀랍게도 우리 사모님들도 우리도 모르게 같은 골프코스(Pro-shop)에 오셨던 것 입니다.

Jane(Mrs. Koh)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며칠전에 구입한 골프채를 휘둘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제안하기를 여기 오는 도중에 골프레인지가 있는데 "Golf Lessons Available"라고 써 있으니 오늘은 우선 거기가서 연습을 하십시오고 부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부인들도 동의하여서 연습장으로 가기로 하고 우리 남자들은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남자들이 Pro-shop을 나간후 한 부인께서 방금

남편이 사준 자기 golf glove를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 "우리 그 사람은 인색하게 나 에게는 산 장갑을 사 주었는지 장갑 손가락 사이사이에 구멍이 나았어!" 하였고 또 다른 부인은 "내 남편도 짤지야, 자기는 양쪽 손에 장갑을 끼면서 나에게는 한쪽 밖에 사주지 않았어!" 하고 말 했다는 것을 후에 들었습니다. 이 네분의 부인들께서 골프 연습장에 가니, 아침 너무 이른 시간이라 골프선생은 없고 마침 그 연습장에 Par3 9홀 코스가 있어서 그 전에 몇번 골프를 쳐보신 Jane의 인도하에 잘 차려입은 네 부인들께서 full golf club이 들어 있는 골프백을 앞으로 안고 치러 나갔습니다.

Tee-ground에는 잔디대신 mat가 있었는데 그 mat에 있는 plastic tee속에 다 방금 산 나무로 만든 tee를 넣고 ball을 친 다음 그 나무로 만든 tee를 빼려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나중이야 들었습니다.

Myrtle Beach에는 그 당시 100개의 골프코스가 있다고 했는데, 매우 경제적으로 골프치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Legends의 3코스, Parkland, Moorland and Heathland는 Scotland의 Links course같은 코스들이고, Hyatt Hotel에 있는 golf course, Wild Wing, Possum Trot, Arcadian Shore, Oyster Bay, Caledonia, Heritage, Pawley Plantation, The Dunes Club들을 쳤습니다

### Mid-Atlantic Korean Golf Association (1981년 부터)

1980년에 W. Virginia, Virginia, North and South Carolina, Georgia, Maryland에 거주하는 한국골퍼들이 결성을 해서 한 두달마다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주말에 골프 모임을 가졌는데 주최하는 그 지역분들이 토요일 저녁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선배이신 West Virginia에서 Orthopedic Surgery를 하시던 이관호 선생님(46)께서 첫 회

장을 하였고 고영희, 이종두 그리고 우리 부부가 참가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모이는 도시로 운전해 가는데 일기가 나빠서 구름이 하늘에 꼭 끼어 있을 지라도 조그마한 break을 찾아보아서 있으면 "저것 봐 곧 햇빛이 날거야!" 하면서 일기가 좋아질거란 희망으로 기다리고 기다린 주말을 향해 달려온 했습니다.

Winston-Salem, North Carolina에 있는 Tanglewood 골프코스가 다른 코스보다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PGA 토너먼트도 열렸고 sand trap이 99개가 있어서 재미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연말대회라고 해서 North Carolina에 있는 유명한 golf resort인 The Pinehurst에서 모여 즐겼습니다. 연말경기는 꼭 그 유명한 #2 course에서 했습니다. All inclusive golf package로 가곤 했었는데 요즘은 꽤 비싸졌으며, #2 코스에서는 1999년, 2005년에 US Open이 열렸고, 2014년에도 US Open과 US Women's Open이 열렸습니다. Golf package로 가더라도 #2 코스를 치려면 extra surcharge \$185를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집 부인(Christine)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남너 합쳐서 장타상을 탔습니다. 그 때 총무를 맡았던 경상도 사나이 이용철씨가 하시는 말씀이 "부인님에 탄 상은 다 따 가져도 좋은데에 탄 사람들에게는 제발 남너 다 합쳐서 장타상 탔다고는 말하지 마시오" 한번은 비가 많이 내려서 모두들 거기서 우비를 사 입었는데 남은 것들은 모두 국방색이어서 마치 Korean Army가 출동 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각 지역에 골프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Mid-Atlantic Korean Golf Assoc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김주응 부부와 같이) Pinehurst에 2번 더 갔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 아직도 그 분이 나를 알아 볼 수 있을 때

허서룡(66, 위스콘신)

그분의 영정앞에 흐느껴 운들  
내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  
좋다는 산으로 모신다고  
그곳이 천당일까

아직도 그 분이 나를 알아 볼 수 있을 때  
아직도 그 분이 내목소리 들을 수 있을 때  
그 옆에 내가 있으면 그자리가 천당이지

나를 잊고 다니시던 그분의 율체어를  
한번더 밀어 볼 수 있을 때  
아직도 따뜻한 그분의 손을  
한번 더 잡아 볼 수 있을 때

<내 또 올께>  
<보면야 좋지만 너도 이제 나이가 있어 힘들게 또 나오지 말아>

그래도 또 다시 가 봐야지  
그것 밖에 내가 헤드릴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 밖에 그 분이 즐거워 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헤어지는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흐느김을 참으려는 내 가슴이 막히고  
돌처럼 굳어 버리더라도  
내가 떠날 때는 울지 않겠다던  
그분의 가슴이 또 다시 찢어지더라도

내일이 어디 있는가  
어제도 내일도 모두 오늘 속에 있는 것  
오늘이 가기 전에  
또 다시 가 봐야지

그러면 내 마음도 조금은 덜 아플거야  
그러면 후회도 조금은 덜 할거야

<왼쪽 냉장고에 보면 꺼민 봉지에 고추가루 두봉다리 있다.  
하나는 너희에게 보내려 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김치 담그려 했던 것인데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언제 내가 집에 가서 김치를 담그겠느냐 두봉다리 갈 때 다 갖고 가거라.>

-2014년 11월 21일, 95세 어머니, 병실에서.

# 백년을 사는 친구들

오태희(64, 키네티켓)



올해 나는 일흔다섯이다. 일흔다섯과 일흔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유치원 어린이에게 몇 살이나 물으면 몇 살에 몇 달까지 밝히는 것처럼 때로는 차이가 좀 나기도 한다. 나이 일흔에는 Yale 대학에서 명예교수 학위를 받고 지금도 우쭐거리는데 일흔다섯에는 사반세기만 있으면 백순이 된다고 나이 자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서울의대 졸업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준비하던 동서양의 동기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행복

이다. 동창회지 <시계탑> 10월 호에는, 이홍표 군의 자세하고 정성스런 기사가 실려 있다. 18회 132명 졸업동기 53명과 가족들이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하여 모교방문 기념행사와 한국 남서부 관광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2년 후에 다시 만나자는 기약을 가슴에 품고 헤어졌다고 한다. 참석자 명단을 살펴 보니 동기들을 직접 만난 것처럼 기쁘고 반갑다. 아울러 유효명 군이 낭독한 시 <재회>는 너무나 감동적이라 눈시울을 적신다 강대희 학장은 인사말에서, 18회 졸업 학년이 학창시절에는 자기는 갓난 아기였다고 하니,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진 한 많은 반백 년 세월이 그리기만 한다.

나에게는 서울대학 모교가 있는가 하면, 1969년 미국으로 건너와 의사 수련을 마치고 1974년부터 인연을 맺은 Yale대학이 제2의 모교가 되었음이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서울의대에서 배우고 Yale 의대에서 가르쳤으니 누가 뭐래도 좀 빠질 만 하지 않은가?

앞으로 다섯 해가 지나면 나는 팔순이다. 그때까지 살아서 뭘 자랑 좀 해야 하는데, 칠순을 지날 때만 해도 팔순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 말이다.

UN 인구보고서는 미국 남성 평균 수명은 올해에 79세로 예상하는데 나는 평균 수명에도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명은 태어나서 일 년마다 30일이 길어지며 세계인구는 13년 사이에 감절로 늘어나 금년에 70억을 돌파하였다. 21세기 중반에 미국 남성 평균 연령이 88세가 되고 세기말에는 100세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모두 가버린 2050년에는 세계인구는 90억에, 미국은 3억을 웃도는 숫자가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미국 인구는 8초에 1명이 탄생하고, 11초에 1명 사망, 45초에 1명이 이민을 와서 결과적으로 13초에 1명이 불어난다. 하지만 실제 숫자를 누가 어떻게 제대로 알까? Longevity의 비결은 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 친구들이여, 너도나도 오래 살고 보자. -- 백순도 넘어서!

# 속도위반

허선행(64, 대뉴욕)



내가 어렸을 때(65-70년 전) 내가 알기로는 하늘에서는 별뿔별과 비행(행)기가 아주 빨랐고, 땅위에서는 "손오공" (중국 "서유기"의 주인공, 원숭이)과 기차 전차였고, 물속이나 바다 속에서는 무슨 생선이나 동물 아니면 잠수함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도 모를 만큼 보고 들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둥글고, 움직인다는 것도 상상도 못하다가 차츰 배우고 들어서 알게 되었으니 그저 우물 안 개구리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었다. 이왕 속도란 말을 했기에 우선 지구의 움직임을 따져 본다면 우선 자전 속도는 1000 miles/hour (적도를 기준으로) 이고, 해를 싸고 도는 공전의 속도는 67000 miles/hour 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니 무지한 나 자신이 부끄럽다고만 해야 할 지, 너무 거창한 속도에 숨쉴 틈이 볼까 한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더 비교해본다면, 현대의

총알의 속도는 1200m/second 안팎이었는데 물론 시간으로 따질 만큼 오래 지탱하는 속도는 아닐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속은 공기층에서 340m/sec 이면서 온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그런데 소리가 고체를 통해 지나갈 때는 훨씬 빨리진다는 사실(유리: 4540m/sec, 구리: 4600m/sec, 알루미늄: 6320m/sec 등등)을 알게 되었고 이런 자료를 보니 유선시대의 장거리 전화의 속도와 요금의 변화가 벌써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속도위반을 따져 본다면, 옛날에는 '속도위반' 하면 자동차가 귀한 때라 현대에서 말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처녀 총각의 사랑이 저지른(?) 결과를 놓고 알가알부 했던 심각한 일이었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과연 이 시대의 사회적, 윤리적 그리고 개인적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요즘을 한국 뉴스에 더 관심이 있게 되다 보니까 많은 뉴스 중에서도 실망도 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 간단한 접촉 사고가 아닌 대형사고가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 알고보니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1등이구나!!! 동방예의지국의 자리를 빼앗긴 대신인가!!

이제는 지구의 자전 속도를 이기려고 운전의 도덕과 법규를 무시하고

남보다 앞서려는 과잉 속도의 허세가 불러일으키는 비극, My car 시대는 벌써 지났는데... 언제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대 잡아볼 날이 올지!! 망막한 국가적 그리고 국민성의 문제임이 틀림 없다고 본다.

이에 못지않게 한국의 교육도 과속 운전속에 인성 교육보다는 그저 지식만을 쫓아 달려 머릿속에 주입시키려는 학교교육 아닌 학원이 날뛰는 나라, 학원이 정규 학교를 몰 맥이고 인성 교육은 땅에 떨어졌으니 교육의 속도위반은 너무 거대해서 자동차 속도위반 보다 더 큰 국가적 대사 이라고 한탄 해 본다.

이러다 보니 최근에 일어난 불상사만 따져 보아도 너무 많고 거창해서 일일이 짚어가기가 부끄러울 정도이지만 모두 질서와 순서 없이 서두른 과잉 속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 된다.

은 국민을 분노, 허탈하게 한 보육원 교사(?)가 저지른 참사 한가지만 따져본다면 그녀의 손찌검 속도는 얼마나 빨랐을까? 그 속도를 1/100로 줄였다면 그 손찌검이 아량이나 사랑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직도 내가 정녕 모르는 것 중의 하나는 인성 교육(가정, 학교, 종교 생활)이 얼마나 우리 인간 모두를 참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성선설과 성악설)

# - 헬로우, '별난 내'

"Hello, 'Pheromone'!"

이홍빈(63, 대뉴욕)

'찌린내'가 물씬, 그래 에미 말대로 내 아랫도리 자칫 속옷내 늴었어라 모른새, 그래 에미 말따나 특함 '찌린내' 내 속옷내 한껏, 조심을 그래 해도 자칫 잘못함 사뭇 '찌린내' 한뼘, 그래 생각에 용승했던, 헬로우, 내 아랫도리 그뻘, 뉘 코엔들 '밤꽃' 사내, 헬로우, 내 아랫도리 그새, 어느새/어물쩍 에미 말따나 '늴은잇내'/'찌린내' 오며가며 자칫 '찌린내'/'늴은잇내', 헬로우, 지난적 내 '밤꽃사내' 지금선 늴창 핀잔들뭇 '찌린내'

암 닥달을 한들/얏뻗가림 조심을 하는들, 그래 에미 말대로 잘못함 이제선 늴창 타박받뭇 '늴은잇내'

(문젠, 문젠은, 어쩌냐/어떡허냐, 그러다 어쩌다 혹 더 '더한 내' 그제선 특함 지겹달뭇 '꾸린내'/혹 '똥내'.)

주: 'Pheromone': '남자사내' / 즉, 솟긋의 독특한 '체취'를 발하는 chemical substance. 이게, 이성/암컷을 자극-꼬셔(to seduce) 끌기(to attract)도, 역겹게해 멀리하게(to repel)도.

'밤꽃사내': 남자 '거시기사내' / 젊은 과부가 이른 여름 이 은근 깊은 '밤꽃사내'에 몸이 끌려 머리에 이고가던 물동이기도 놓쳐 버린다는.

# 졸업 오십주년 기념여행 서정시

이수인(63, 남가주)

## 오십 년 후

우리같이 실험실 다녔지, 한 친구의 말은 친구 죽은 친구 안 온 친구 다 모여서 졸업 오십 주년이라 마로니에 나뭇잎이 풍성하던 날 나는 이곳을 떠났지 참 반갑군 한적하던 병원 길이 도심처럼 변했고 이젠 그저 꼭 차버린 도시라 했다.

## 전라도

"사람두 아녀" 노인 할인 입장권을 사 주면서 사촌이 내게 건넨 말 나도 모르게 그새 내 나이 칠뽕이라 타성에 예부터 길들여진 나이여서 새로운게 없지만 내 전라도 여행은 이렇게 시작된다. 삼십 분을 달려야 하는 새만금 방파제 바람길 산과 바다와 바람이 어울려 이젠 부러울것이 없는 한국인의 머리와 손 군산에선 팔층짜리 군산횃집이 있습니다. 수영장 규모의 횃감 수영장 장항을 견네보면서 정갈한 통사시미 해물탕 매운탕 조개탕 순천 꼬막집에서 오늘은 하루종일 꼬막일세 꼬막무침 꼬막찌개 꼬막파전 꼬막달래무침, 마침 제철인자라 담양에선 대나무통밥 갈끔한 대전 갈국수 유명하던 명동 갈국수 인천 대공원 옆 짜장면집 보성 녹차원에 아담한 녹차꽃 오월엔 녹차 대축제때 오세요 순천만 생태공원 갈대밭 명승지, 갈대밭 바람소리에 가슴 답답함이 없어지네 "난 내키보다 큰 갈대밭과 순천만으로 지는 석양을 보지 못했다

언젠가 가보세요" 비록 대단한 무엇이 있는건 아니지만 일상과 다른 시간이 있다."

## 크루즈

"자유로운 사람, 언제나 너는 바다를 사랑한다. 바다는 네 거울 너는 그 파도의 끝없는 펼침 속에 네 넋을 관조한다 -보드레르" 바다에선 우리 모두 시인이 된다 여기 Costa Victoria에 앉아 십여일 사람들은 길다고 하는데 섬하나 만나지 않는날은 쪽 뺨고 누워 가만히 무언가 기다리는 나태에 적응안된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 내가 역겨운데 온통 구름에 가려진 바다는 장난치기 친구의 선물이려니 바다는 한순간 자유분방한 알바인가 또 한순간 단조롭고 수줍은 물방앗간 처녀인가

홍콩에서 돈 이야기 다낭에서 돈 이야기 싱가포르에서 돈 이야기 세상은 온통 돈 이야기로 꽉 찼는데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요 나는 다르지만 귀엽게 생긴 비에트남 가이드의 말 황금을 꿈처럼 안고 사는 처녀들 한내 나는 음식을 먹고 제이드엔 곳사마를 새기고 멋진 향피운 동굴에서 잠시 내 영혼은 쉰다. 민주주의 질서가 옛성처럼 무너진 오토바이가 난무하는 다낭의 거리 거리 거리

싸이 인기 대단하네 유튜브에선 그저 그런엔 강남 스타일이 배위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에 같이 열광하는 우리 틈에서 감정은 불같이 솟아오르고 코리아이야, 나도 옆의 농담친구 영국인에게 말했어 조바심스런 한국인으로 태어난 나 그뻘 별거 아닌 크루즈가 지금 생각하면 다시 갈 수 있기를 원하는 나 나는 순간마다 변질하는 체성이 있기에 이제껏 살았나보다

#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4년 7월 2일 ~ 2015년 1월 20일

- 1948 한용현
- 1950 이철남
- 1952 박종식 김정준
- 1954 이은희
- 1956 김신형 도상탁 박삼기 서상철 신명수 주창준
- 1957 김양호 김일훈 김용진 박건호 이동성 임종식 임종원 정구영 정진묵 한성택 홍재홍
- 1958 김기태 김학륜 김순옥 김석희 김수산 김시한 류치열 박용화 박호현 배영섭 송세업 신상근 유영호 이동목 이만택 이상설 이운수 이종용 이종국 최병두 최정희 최창송
- 1959 강상진 김교안 김용덕 김병구 김병석 김은섭 김한섭 나길진 박용순 반응균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이교락 임낙중 정태진 한성업 최대한 최용천 채규철
- 1960 권기홍 김원주 김영환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춘명 조재동 염극용 오신중 이종석 이덕승 이상일 임종원 임필순 한성수 최용성
- 1961 강세부 광동린 고의걸 김성준 김영기 김영철 김유홍 박준환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준우 이재두 이재승 이한수 이희경 이희백 장성환 정철용 조은순 차절준 최지원 최성덕 최태순 황현상
- 1962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김호균 구정용 남성희 박진수 박종건 박찬형 손영진 송영두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석우 이영용 이용길 유충국 윤홍철 정정수 조병호
- 1963 권영조 권영재 고영희 김갑중 김정일 김승태 김주용 김태웅 김태형 김현철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박세록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영규 양찬기 윤영섭 윤영국 왕규현 이기환 이능석 이병준 이재명 이수인 이승현 이범세 이종두 임준수 윤진수 조열하 조한원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 1964 강창만 김용두 라찬국 박세준 박한영 방효준 신두식 신영찬 양운택 오유섭 유광현 유효명 유창남 이광신 이법석 이종성 이용만 이유찬 이정필 이종오 이정은 이홍표 임병훈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최준희 선우세현
- 1965 권태해 구경희 민경탁 박수안 백길영 서좌일 손광호 신백효 오수환 이광선 이법석 이정희 이재진 이화성 이한중 이한승 임현재 잠재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지영환 최영인 채도경 채무원 한재은 홍수용 황규정
- 1966 김진수 김용재 김우신 김의신 김은한 김충규 남궁승 노규상 민발식 이명희 이영일 이성근 윤명선 장한교 정양수 조관상 조규용 조의열 최순채 최영자 한일성 허서룡
- 1967 강명식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박종민 이근용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정화 이진수 한영수 최무용 최승웅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재관 김주평 김영남 김명덕 김희주 김 철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진석 서영일 서윤석 송창호 안세현 안금환 이견일 이대용 임공세 차재철 최 철 홍광신
- 1969 김병오 김중권 김흥서 송용재 윤효운 이충호 임안무 임응규 최종일
- 1970 김형달 문성길 방준재 송요준 여준구 이성춘 유희철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김일영 김제홍 김성환 김유식 김택수 김 훈 김효순 김창구 노재홍 박동수 배성호 서정자 장문석 장 철 정인용 조세진 양성훈 이성길 이원택 이진영 오동환 오상현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장혜숙 최인섭
-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두섭 문대욱 방병기 서인석 송정자 심완섭 오인환 이계석 임준형
- 1974 권철수 구재훈 이진현
- 1975 김병호 김지여 김원정 박인영 전경배
- 1977 강준희
- 1978 허경열
- 1981 박범열 이명호 한창규 최선희
- 1985 박종효
- 1988 서예경
- 1999 박성철
- 2000 황필규
- 1976 김대중 김정아 한승진
- 1980 박남훈
- 1982 서은희
- 1983 심인보
- 1989 오무연
- 1994 안상훈

### 32nd Convention Donation

- 서상철(56) 200 이종석(60) 100 이희경(61) 100 황현상(60) 100 송영두(62) 100
- 김현철(63) 100 이능석(63) 300 이홍표(64) 500 허선행(64)1000 이명희(66)1000
- 강창홍(71)1000 김성환(71) 500 김유식(71) 100 김창구(71) 100 오용호(72) 200
- 나두섭(73) 100 서인석(73)5000 임준형(73) 100

### General Donation

- 노용면(55) 200 김익창(56) 100 신상근(58) 200 이동목(58) 100 권기홍(60)1000
- 장선환(61) 100 송용덕(63) 100 추재욱(63)2000 박수안(65) 75 김성철(67) 75

- 이근용(68) 100 김형달(70) 100 김유식(71) 75 장문석(71) 100 오용호(72) 100
- 서인석(73) 500 임준형(73) 100 김명호(75) 100 심인보(83) 500

### Scholarship Fund

- 김은섭(59) 200 임필순(60) 200 이기범(62) 100 서정자(71) 200 서인석(73) 500
- 임준형(73) 100

### Charity

- 주창준(56) 25 김한중(62) 100 노인규(63) 75 홍선경(64) 100 서인석(73) 500
- 임준형(73) 100

### Green Project

- 이용길(62) 200 민발식(66) 100 김주평(68) 100 서인석(73) 2500 임준형(73) 100
- 박남훈(80) 175

### Community Outreach Fund

- 서인석(73) 500 임준형(73) 100

### Sigetop MoonJip

- 나수섭(50) 200 김갑균(54) 300 노용면(55) 1000 김해암(58) 500 박호현(58) 200
- 김병석(59) 200 임낙중(59) 200 강창욱(61) 200 서위열(61) 200 손기용(61) 200
- 이한수(61) 200 이희경(61) 200 정의철(61) 200 이혜원(61) 300 정두현(61) 200
- 오태요(62) 200 정정수(62) 200 정 태(62) 500 신영규(63) 200 이홍빈(63) 200
- 이철남(64) 200 정유석(64) 200 허선행(64) 300 이한중(65) 200 이명희(66) 200
- 최순채(66) 200 최무용(67) 200 김명원(68) 200 서윤석(68) 250 이견일(68) 200
- 김병오(69) 200 서 랑(69) 300 노승국(70) 200 방준재(70) 200 홍 건(70) 200
- 김성환(71) 500 박진국(71) 200 이원택(71) 300 조세진(71) 200 홍성진(71) 200
- 나두섭(73) 200 방병기(73) 200 임준형(73) 200

### Member Directory Fund

- 강신호(52)5000 박근수(49) 75 나수섭(50) 75 이상하(51) 100 노용면(55) 75
- 김익창(56) 50 임종식(57) 100 임종원(57) 300 이상환(57) 25 정구영(57) 30
- 차봉희(57) 10 김윤범(58) 100 이운순(58) 100 임영신(58) 50 김용덕(59) 75
- 김은섭(59) 200 김병구(59) 100 정태진(59) 75 최혜숙(59) 100 박춘명(60) 300
- 박명근(60) 100 우병혁(60) 100 이순환(60) 75 이종석(60) 100 한성수(60) 150
- 강창욱(61) 50 김유홍(61) 75 이한수(61) 25 이희백(61) 75 장성환(61) 50
- 진창건(61) 75 최지원(61) 120 최태순(61) 75 황현상(61) 200 김한중(62) 150
- 민경환(62) 125 박종건(62) 100 송영두(62) 100 윤홍철(62) 75 이기범(62) 75
- 이상복(62) 100 이태봉(62) 50 권영조(63) 100 김현철(63) 275 이법세(63) 150
- 송용덕(63) 50 장세곤(63) 100 하상태(63) 200 한광수(63) 125 권정덕(64) 100
- 김태환(64) 10 양운택(64) 100 이홍표(64) 300 전희택(64) 50 정인태(64) 30
- 허선행(64) 600 홍선경(64) 100 이재진(65) 100 이한중(65) 100 정길화(65) 75
- 채도경(65) 100 광일성(66) 25 노규상(66) 500 이명희(66)1000 장한교(66) 50
- 정양수(66) 50 조의열(66) 100 허서룡(66) 25 최순채(66) 75 이소희(67) 100
- 한영수(67) 100 서진석(68) 50 서윤석(68) 305 서관우(68) 50 차재철(68) 300
- 최 철(68) 100 김중권(69) 200 변영석(69) 100 이승공(69) 100 이용환(69) 100
- 윤효운(69) 100 방준재(70) 100 강창홍(71) 75 김성환(71) 50 김유식(71) 75
- 김창구(71) 75 서정자(71) 100 오동환(71) 100 이성길(71) 50 이원택(71) 75
- 이창우(71) 300 조세진(71) 50 정진우(72) 100 석창호(72) 500 오용호(72) 200
- 문대욱(73)1000 방병기(73) 125 서인석(73) 500 임준형(73) 400 오인환(73) 100
- 권철수(74) 100 박인영(75) 50 김대중(76) 100 김승관(76) 100 김동수(78) 100
- 전영식(78) 100 발전기금 500 서울의대동창회 3,000

( )는 서울의대 졸업 년도임.

### Directory Advertisement for Practicing Alums 공고

청양의 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번 6월에 출간 예정인 북미주 서울의대 동창회 Directory에 개업하고 계시는 동문들의 광고를 게재하고 싶습니다.

저희 Directory는 1200 북미주 동문들은 물론 모국에서도 전화기 옆에 가장 많이 놓여있는 베스트 셀러중의 하나입니다.

북미주는 물론 고국의 동문, 가족, 친척, 친구들이 전문의를 찾을 때 무척 요긴하게 쓰일 Global Networking의 혜택을 공유하시지 않으시렵니까?

### Fund Raising Committee

추재욱(63, Chairman), 이명희(66), Mrs. 김성환(71), 차민영(82)  
 동창회 사무실: snucmaa@yahoo.com; 516-365-5500;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